

2025 꿈의 무용단 운영사업
꿈의 무용단 강릉 '온전한 하나' 결과자료집

우리는 하나다,
온전한 하나다.

온하



꿈의
무용단

Dance Company of
Dream



우리는 하나다,
온전한 하나다.

온하

2025 꿈의 무용단 운영사업
꿈의 무용단 강릉 '온전한 하나' 결과자료집



1 꿈의 무용단



◆ 꿈의 무용단이란?

사업소개
전국 거점기관 현황

◆ 꿈의 무용단 '강릉'

꿈의 무용단 강릉을 소개합니다.
숫자로 보는 2025 꿈의 무용단 강릉
단원들은 이렇게 성장합니다.
3년 동안의 발자취

사업소개

꿈의 무용단 이란?



꿈의 무용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으로, 다양한 무용(한국·현대·실용무용, 발레 등) 교육활동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춤과 공연을 만들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01

사회·문화적 취약계층 포함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들이 무용을 통하여 아동·청소년기에 다면적 인격 성장을 이루고, 나아가 가족과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 발전에 기여합니다.

02

자신의 세계를 담은 무용 작품 창작과 공연이라는 종합예술로서의 사업 고유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보하고 대내외 네트워크 발굴, 연계를 통한 사업 가치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사업특징



<p>성장과 변화</p>	<p>건강한 사회의 시작은 아이들로부터 출발합니다.</p> <p>꿈의 무용단을 통해 아이들은 가치관·정체성·미래 역량 발굴 등 전인적인 성장을 경험하며, 한 해 동안 만든 춤을 나누는 시간(공연)을 통해 가족과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에도 기여합니다.</p>
<p>다양성</p>	<p>사회적·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경계를 넘어 '몸'의 언어로 연대하고 소통합니다.</p>
<p>창의성</p>	<p>춤을 추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의 세계(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합니다.</p> <p>'몸'이라는 소통 수단을 매개로 나의 세계가 춤으로 표현(연결)되고, 우리가 만든 춤들이 연결되어 작품(레퍼토리)이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p> <p>작품(레퍼토리)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예술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을 비롯해 창의적 개인으로서의 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p> <p>기존 저명한 작품을 활용하여 예술작품의 시대적 배경, 작가의 이야기를 포함한 예술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기반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스토리와 안무를 재구성·연결할 수 있으며,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작품을 창작해나갈 수도 있습니다.</p>
<p>예술성</p>	<p>참여하는 예술가는 매개자로서 아이들의 역량, 잠재력, 특성을 탐색·발견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안무가가 되어 춤을 만드는 과정을 이끄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동시에 아이들의 춤을 연결하고 작품을 만드는 창작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p>
<p>관계성</p>	<p>아이들은 단순히 기능적인 학습이 아닌 함께 춤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공동창작 과정의 경험과 공연을 올리는 경험을 통해 협력, 포용 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적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p>

꿈의 무용단 '강릉'

꿈의 무용단 강릉을 소개합니다.

◆ 팀 슬로건 ◆

우리는 하나다,
온전한 하나다.
온-하!



강릉 꿈의 무용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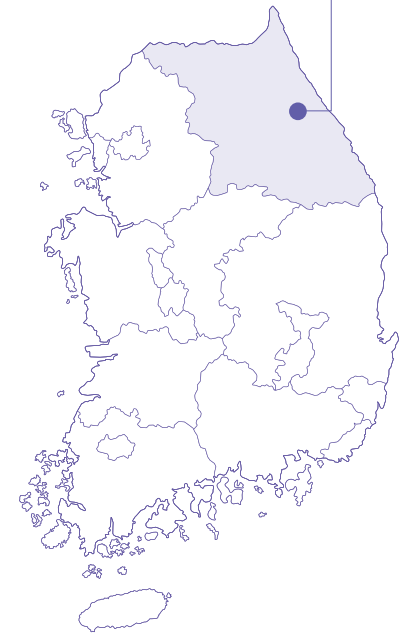
순수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을 기반으로
'누구나 예술 창작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치 아래
몸의 움직임을 통해 온전한 나와 너를 마주하는
성장과 과정 중심의 프로그램입니다.

◆ 지역별 거점기관 현황 ◆

2025년 기준 현재,
전국 13개 지역에서 34개소의 거점기관 운영 중

지역	거점기관수	거점기관명
강원	1개소	강릉문화재단
서울	6개소	관악문화재단, 성동문화재단, 송파문화재단, 노원문화재단, 은평문화재단, 광진문화재단
경기	5개소	안양문화예술재단, 하남문화재단, 구리문화재단, 오산문화재단,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인천	2개소	연수문화재단, 인천중구문화재단
충북	2개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제천문화재단
충남	3개소	공주문화관광재단, 논산문화관광재단, 천안문화재단
전북	5개소	군산시민예술촌, 부안군문화재단, 완주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 임실문화원
전남	1개소	화순군문화관광재단
광주	1개소	소촌아트팩토리(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위원회)
대구	2개소	행복북구문화재단, 대구대덕문화전당
경북	3개소	영덕문화관광재단, 칠곡문화관광재단, 포항문화재단
경남	2개소	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문화의전당, 사천문화재단
울산	1개소	울주문화재단

강원권 유일의
꿈의 무용단 '강릉'



운영 조직도

숫자로 보는 2025 꿈의 무용단 강릉



<p>0</p> <p>전국 최초로</p> <p>강릉시에서 꿈의 무용단, 극단 오케스트라 동시운영</p>	<p>1</p> <p>1개소</p> <p>강원도에서 오직 유일한 꿈의 무용단 '강릉'</p>	<p>3</p> <p>3년차</p> <p>시작과 성장을 넘어, 안정화된 커리큘럼으로 심화과정 도약</p>
<p>5</p> <p>5가지 이상의</p> <p>다양한 활동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육·캠프·공연관람·정기공연·외부공연 등)</p>	<p>37</p> <p>37명</p> <p>37명의 단원으로 전국 최다 단원 운영</p>	<p>43</p> <p>총 43회차</p> <p>정기수업 진행 (+5회의 특별교육 별도 진행)</p>
<p>50</p> <p>전체 단원의 과반수가</p> <p>2년 이상 연속 활동 지속</p>	<p>100</p> <p>100% made in gangneung</p> <p>강사와 창작진이 안무부터 음악까지 직접 제작하여, 강릉의 이야기를 담아 세상에 하나뿐인 춤을 제작</p>	<p>159</p> <p>총 159시수</p> <p>정기수업 진행</p>
<p>∞</p> <p>꿈의 무용단 '강릉'과 단원들의 성장 가능성</p>		

꿈의 무용단 강릉을 통해
단원들은 이렇게 성장합니다.

◆ 목표 (기본가치) ◆

춤을 통해 나(개인)와, 너(타인), 공동체(지역)를 이해하여 하나로 연결합니다.

춤으로 타인에게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 체득합니다.

타인과의 교감을 통한 관계 형성합니다.

지속적인 예술적 잠재력을 발현할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과 유기적으로 성장합니다.

1 지역의 문화와 자연 탐색

단원들은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함께 탐구하며 체험 활동을 통해 폭넓은 시각과 감수성을 키웁니다.

2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적 경험

삶의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고 고민하며 이를 몸의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풍부한 예술적 경험을 쌓아갑니다.

3 다양성의 이해와 존중

자신의 억압된 감정과 생각을 돌아보고,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인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4 창의성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

예술 창작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개발하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며 각자의 개성과 잠재력을 발현합니다. 이를 통해 심미적이고 풍요로운 정서를 함양합니다.

5 자신의 감정과 가치관 표현

생각, 감정, 가치관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다각적인 인지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6 다양성 수용의 연습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해 포용력 있는 태도와 열린 마음을 길러갑니다.

2025 꿈의 무용단 강릉

운영개요

교육대상 강릉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 ~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춤을 사랑하는 청소년 누구나

무용장르 한국무용, 현대무용

교육기간 2025년. 3 ~ 11월 (9개월간) / 43회차 / 159차시 * 특별교육 5회 별도운영

교육장소 명주예술마당 연습실 **대연습실, 중연습실**

교육과정

교육단계 소통	① 몸열기, 생각열기, 마음열기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마주합니다.
	② 신체 인지 활동, 감각 활동, 기초 무용 수업을 통해 몸의 움직임을 익히고 수업이 진행됩니다.
	③ 다양한 활동으로 자신의 생각, 감정, 가치관을 표현하며 인지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④ 온전한 교감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⑤ 1기와 2기로 나누어 분반 활동하며, 필요 시 함께 합반 수업도 진행합니다.
창작단계 경험	① 공연 레퍼토리 주제와 연결된 체험 학습을 통해 주제를 탐색합니다.
	② 주제를 함께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과정을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③ 자신의 움직임을 찾아가는 신체 인지 활동을 배우며,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움직임을 경험합니다.
	④ 춤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예술적 안목을 키웁니다.
공연단계 창작	①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②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작품의 구성과 흐름을 설계합니다.
	③ 춤 장면은 학습자 스스로 움직임을 탐색하며 만들고, 교육자는 이를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④ 수업 중 메타인지 활동을 통해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기록합니다.
	⑤ 다양한 움직임을 모방하고 표현하면서 창의력을 키웁니다.

3년 동안의 발자취

2023

- 5월 — 꿈의 댄스팀 단원 모집
 - 6월 — 꿈의 댄스팀 정기연습 시작 (~12월)
 - 8월 — 꿈의 여름캠프 <감각과 상상을 깨우자!> 개최
 - 9월 — 강릉아트센터 × 강릉문화재단 협력 프로그램 <기술과 예술의 만남> 공연
 - 11월 — 강원문화재단 성과공유회 우수사례 선정
 - 12월 — 제1회 꿈의 댄스팀 강릉 정기공연 <몸짓으로 전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개최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강릉 <상화봉송 투어 문화공연>

2024

- 1월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강릉 페스티벌 시민참여 문화공연>
- 3월 — 꿈의 무용단(구 꿈의 댄스팀) 사업명 변경
- 4월 — 꿈의 무용단 2기 단원 모집
- 5월 — 꿈의 무용단 정기연습 시작 (~11월)
- 6월 — 강릉단오제 수리마당 메인무대 공연
- 7월 — 꿈의 오케스트라 강릉 × 꿈의 무용단 강릉 합동공연 프로젝트 시작
- 8월 — 꿈의 페스티벌 <찾아가는 공연> 참여 (*꿈의 페스티벌: 문체부 주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꿈의 페스티벌 × 꿈꾸는사임당예술터 <해외 예술가 초청 워크숍> 참여
 꿈의 페스티벌 <꿈의 캠프 및 합동 퍼포먼스> 참여
 꿈의 오케스트라 강릉 × 꿈의 무용단 <강릉 야행> 합동 공연
- 11월 — 제2회 꿈의 무용단 강릉 정기공연 <웰컴 투 강릉> 개최 (11.16. / 강릉아트센터 대공연장)
- 12월 — 2024 꿈의 오케스트라 강릉 정기연주회 X 꿈의 무용단 강릉 합동 공연 (12.17. / 강릉아트센터 대공연장)

2025

- 2월 — 꿈의 무용단 3기 단원 모집
 - 3월 — 꿈의 무용단 정기연습 시작 (~11월)
 - 5월 — 강릉단오제 '무대공연 예술작품 선정작' 프로그램 공연 (5.31. / 강릉단오장 수리마당)
 - 7월 — 지역 소재 뮤지컬 <강릉야화 흥장편> 단체관람
 2025 꿈의 예술단 합동캠프 <꿈의 페스티벌> 사전 워크숍 참여 (*꿈의 페스티벌: 문체부 주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 8월 — 2025 꿈의 예술단 합동캠프 <꿈의 페스티벌> 참여
 - 11월 — 제3회 꿈의 무용단 강릉 정기공연 <이상한 강릉의 앨리스> 개최 (11.16. / 강릉아트센터 대공연장)
- 제1회 꿈의 극단 강릉 정기공연 <나의 안테나에게> 공연 관람 (11.22. / 강릉아트센터 대공연장)



2 이상한 강릉의 앨리스

◆ 프롤로그

이상한 강릉에서의 여정들

◆ 제3회 정기공연 <이상한 강릉의 앨리스>

이상한 강릉의 앨리스들을 소개합니다!



이상한 강릉에서의 여정들

- 2월**
 - 연구** 2025 교육 커리큘럼 연구 개발 **2월**
 - 모집** 2025 꿈의 무용단 강릉 3기 단원 모집 **2.12.~2.28.**
 - 모집** 2025 꿈의 무용단 강릉 사업설명회 **2.22. / 꿈꾸는사임당예술터**
- 3월**
 - 오디션** 2025 꿈의 무용단 강릉 3기 단원 모집 오디션 진행 **3.8. / 명주예술마당 연습실**
 - 정기연습**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 진행 **3.15. / 명주예술마당 연습실**
 - 정기연습** 1~3회차 진행
- 4월**
 - 정기연습** 4~7회차 진행
- 5월**
 - 정기연습** 8~11회차 진행
 - 특별교육** 강릉단오제 '무대공연 예술작품 선정작' 프로그램 공연 참여 **5.31. / 강릉단오장 수리마당**
- 6월**
 - 정기연습** 12~14회차 진행
 - 언론취재** 꿈의 무용단 '강릉' 연습장면 취재 **6.28.촬영 6.30.보도 / MBC강원영동**

- 7월**
 - 정기연습** 15~17회차 진행
 - 특별교육** 2025 꿈의 예술단 합동캠프 <꿈의 페스티벌> 사전 워크숍 참여
 - 특별교육** 지역 소재 뮤지컬 <강릉야화 흥장편> 단체관람
- 8월**
 - 정기연습** 18~21회차 진행
 - 특별교육** 2025 꿈의 예술단 합동캠프 <꿈의 페스티벌> 참여
- 9월**
 - 정기연습** 22~25회차 진행
- 10월**
 - 정기연습** 26~33회차 진행
 - 언론취재** 꿈의 무용단 '강릉' 연습장면 취재 **10.10.취재 10.15.송출 / KBS1 라디오 '전국일주'**
- 11월**
 - 정기연습** 34~43회차 진행
 - 공연** 2025 꿈의 무용단 강릉 제3회 정기공연 <이상한 강릉의 앨리스> 개최 **11.16. / 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
 - 특별교육** 2025 꿈의 극단 강릉 제1회 정기공연 <나의 안테나에게> 개최 **11.22. / 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

2025 꿈의 무용단 강릉

제3회 정기공연 <이상한 강릉의 앨리스>

◆ 일시 _ 2025. 11. 16. (일) 오후 5시

◆ 장소 _ 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

◆ 러닝타임 _ 60분

◆ 작품명 _ 이상한 강릉의 앨리스

◆ 작품소개 _

판타지 무용극 '이상한 강릉의 앨리스'는
고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강릉 고유의 정서를 아름답게 녹여낸 창작 무용극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 무언가를 갈망하던 앨리스는
시계 태엽 소리에 이끌려 환상의 세계 '이상한 강릉'에 발을 디딤니다.

신비로운 대나무 숲과 그윽한 커피 향, 깊고 푸른 바다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는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여정 끝에 진정한 자신의 꿈과 내면의 성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단원들의 꿈이 빛나는 결실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몸짓으로 표현하며, '너, 나, 우리'의 관계를 무용을 통해 탐구해왔습니다.
춤을 통해 스스로를 발견하고 세상을 배워가는 단원들의 그 찬란한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이상한 강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상한 강릉의 앨리스들을 소개합니다!



강다운



강다현



권나연



권보민



권지윤



김민서



김민지



김서윤



김시윤



김아현



김에나



김에린



김에서



김지원



김지윤



김지현



남유주



박규리



박다유



박서윤



박소윤



박한준



박희수



성연서



심채연



유에안



이수련



이아루



이재린



이지윤



이하울



장운정



전하윤



지은세



최러임



추연아



홍라희

#prol.

앨리스의 일상

단조롭고 반복되는 일상.
앨리스는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정적을 깨고 멀리서 들려오는 기묘한 소리.
'짜깁, 짜깁...'

누군가 시계태엽을 감는 듯한 그 신비로운 울림에 이끌려,
앨리스는 어느새 익숙한 세상을 뒤로하고
낯선 세계의 나무 앞에서 있었어요.



#1

강릉의 시계 토끼들

저 멀리서 들려오던 시계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가까워지는 그 순간,
대나무를 든 토끼들이 앨리스를 에워쌌어요.

강릉의 숲을 지키는 토끼들은
마치 시간을 조율하듯 그들의 몸짓으로 대나무를 움직이더니,
앨리스에게 신비로운 세계로 통하는 입구를 만들어 주었어요.

앨리스는 토끼들의 안내에 이끌려
마침내 현실의 경계를 넘어
'이상한 강릉'의 세계로 첫발을 내딛게 되는데...



앨리스와 토끼

와글와글하던 강릉의 시계토끼들이 춤을 추듯 지나가고, 주변이 잠시 조용해진 찰나였습니다. 앨리스가 그 신기한 광경에 넋을 잃고 서 있을 때, 무리의 맨 뒤에서 허둥지둥 달려오는 토끼 한 마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토끼는 특이하게도 주홍빛 당근을 가방처럼 매고 있었습니다.

“저기, 잠깐만! 너는 왜 당근을 가방처럼 매고 가는 거야?”

앨리스의 목소리에 토끼가 흠칫 놀라 멈춰 섰습니다.

토끼는 앨리스를 한번 쳐다보고는, 손목의 시계를 보며 다급하게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대답할 시간이 없어! 늦었어, 늦었어!”

토끼는 시계를 보며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당근을 맨 토끼는 쫓긋 솟은 귀를 휘날리며, 앞서간 친구들이 사라진 방향으로 깡충깡충 뛰어갔습니다.

앨리스는 홀로 남겨졌지만, 토끼가 흘리고 간 묘한 설렘에 이끌려 그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강릉의 대나무 숲 (1)

이상한 강릉의 문을 활짝 열자, 온통 초록빛이 쏟아지는 깊고 깊은 대나무 숲이 나타났어요.
그 앞을 지키던 당근을 맨 토끼가 다급하게 앞발을 저으며 앨리스를 가로막았답니다.

“안 돼! 저기는 들어가면 안 돼! 짓궂은 요정들이 산단 말이야!”

하지만 호기심을 참지 못한 앨리스는 토끼의 경고를 뒤로하고, 홀린 듯 숲속으로 성큼 발을 들여놓고 말았죠.

그곳에는 대나무 요정들이 살고 있었어요. 요정들은 숲을 가꾸며, 햇빛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의 결을 다듬으며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잎사귀 사이로 스며들면, 요정들은 바람에 맞춰 소곤소곤 속삭이며 춤을 추었지요.

그런데, 평화롭던 숲에 낯선 앨리스의 향기가 불어온 거예요!

“쿵쿵, 이게 무슨 냄새지?”



강릉의 대나무 숲 (2)

낮선 내음에 이끌려 요정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서서히 앨리스를 향해 다가갔답니다.
사락, 사락... 바람 소리는 점차 날카로워졌고,
고요했던 숲은 어느새 팽팽한 긴장과 으스스한 기운으로 길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요정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앨리스를 에워싸자, 앨리스는 겁에 질려 오들오들 떨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구석에서 지켜보던 토끼는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으휴... 그러니까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환상의 커피숍 (1)

우여곡절 끝에 이상한 강릉의 숲을 지나자, 또 하나의 낯선 공간이 나타났어요.

홀린 듯 고개를 들자, 안개 너머로 은은한 호박색 조명이 일렁이는 '환상의 커피숍'이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그곳은 갓 볶아낸 원두의 고소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딘가 기묘하게 일그러진 공기가 흐르고 있었지요.
달그락거리는 찻잔 소리는 마치 주문처럼 들려왔고, 의자에 앉은 그림자들은 앨리스를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그 묘한 향기에 이끌려, 떨리는 손을 뻗어 겨우 따뜻한 커피잔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튀어나온 장난꾸러기 친구가 앨리스의 커피잔을 낚아채려 했어요.

“이리 줘, 그건 내 거야!”

앨리스도 질세라 잔을 꼭 붙잡았고, 둘은 아슬아슬하게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벌였지요.



환상의 커피숍 (2)

서로 뺏고 뺏기던 팽팽한 순간, 손이 미끄러지며...

짹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커피잔이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그 소리에 멍칫하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평범했던 커피숍 안은 순식간에 춤에 홀린 사람들의 세계로 변해버렸어요.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무대 위,
앨리스는 멈출 수 없는 춤과 웃음이 가득한,
그 기묘한 커피 향기 속으로 속절없이 빨려 들어가고 말았답니다.

그 어지러운 춤의 소용돌이 속, 앨리스는 혼란을 틈타 마침내 새로운 커피잔을 손에 쥐게 되었어요.



#5

강릉의 바다 (1)

커피를 마시는 순간,
그 향긋한 내음은 푸른 물결이 되어 앨리스를 바다 한가운데로 이끌었어요.

저 멀리서는 신비로운 울림이 들려왔어요.
“우우웅—”

그 깊고 웅장한 고래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여 다가가자,
알록달록한 물고기와 바다 생명들이 앨리스를 반갑게 맞이했지요.

그들은 앨리스를 따스하게 감싸 안으며 환상의 춤을 시작했습니다.
앨리스가 손을 흔들면 물고기 떼가 꼬리를 살랑이며 그 손짓을 따라오고,
앨리스가 빙글 돌면 바다 친구들도 함께 원을 그리며 춤을 추었습니다.
마치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것처럼 말이예요.



강릉의 바다 (2)

하지만 평화도 잠시,
거센 파도와 역경이 들이닥치며 엘리스는 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파도는 엘리스를 앞뒤로 거칠게 밀어냈고,
은빛 물고기 떼는 소용돌이처럼 그녀를 집어삼킬 듯 휘감았습니다.

낮선 이방인을 경계하는 바다 생명들의 차가운 시선에 엘리스가 두려움으로 굳어있는데
어디선가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강릉의 바다 (3)

“괜찮아, 파도에 몸을 맡겨 봐.”

휘청이는 앨리스의 곁으로 다시 다가오는 함께 춤추던 바다의 친구들.
그들은 앨리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친구들의 응원 속에서 앨리스는 파도에 몸을 맡기는 법을 배우고,
마침내 스스로 균형을 찾아 일어섰어요.

이상한 강릉의 바다 깊은 곳,
앨리스는 이제 두려움을 던지고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수많은 즐거움과 낯선 경험,
그리고 휘몰아치는 역경 속에서
앨리스는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잡는 법을 배웠어요.

매일 걸던 어제와 똑같은 길 위지만,
그 길 위에 선 앨리스는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반짝반짝 빛이 났지요.

‘이상한 강릉’의 긴 여정을 지나온 앨리스.
앨리스는 이제는 한 뼘 더 자라난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향해 힘차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End

온전한 하나













3 비하인드 스토리

◆ 이상한 강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 엘리스들의 1년

특별한 순간들

정기수업

엘리스의 일기



이상한 강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주요인력

무용감독 정은혜

주강사 홍도은, 양설희, 김조안

운영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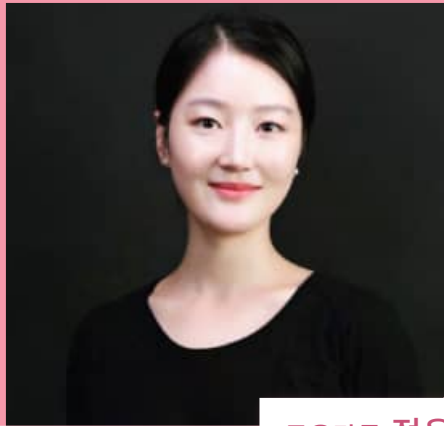
행정담당 이서영

창작인력

연출 김재현

음악작곡 최원형





무용감독 정은혜

나에게 꿈의 무용단 강릉은

꿈의 정원이다.

🌸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이번 2025년 꿈의 무용단 강릉에서 맡으신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강릉 꿈의무용단 무용감독 정은혜입니다. 저는 무용이라는 예술장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자기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과 예술적 가치를 설계하는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와 강릉문화재단이 함께 하는 이 소중한 터전 위에서 아이들의 몸짓이 단순한 움직임을 넘어 자신만의 꿈과 희망을 담은 언어가 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끌어갑니다.

♡ 꿈의 무용단 강릉과 나, 그리고 우리 ♡

Q1 기획의도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꿈의 무용단 강릉이 <이상한 강릉의 앨리스>라는 작품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그리고 '강릉'이라는 지역적 색채를 '앨리스'라는 고전에 어떻게 녹여내고자 하셨나요?

지난 2년간 강릉 꿈의무용단은 단원들이 자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터전인 '강릉'을 주체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왔습니다. 익숙했던 지역을 새로운 시선으로 탐험하며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고전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 삼아 낮은 세계로의 모험이 성장의 동력이 되듯 우리의 일상 또한 상상력에 따라 언제든 환상적인 무대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지점은 '시선의 변화'라는 예술적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강릉의 흔한 대나무 숲을 무대 위 요정들이 사는 공간으로 재해석한 경험은 아이들의 일상을 바꿉니다. 이제 우리 단원들은 길을 걷다 대나무 숲을 마주할 때마다 '저기 요정들이 살고 있을지도 몰라'라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용극을 통해 단원들의 삶 속에 '예술적 추억'이라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아이들이 강릉의 바다와 숲, 거리를 거닐며 이 작품의 순간들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Q2 교육철학 꿈의 무용단은 단순한 기능 습득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춤으로 만드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커리큘럼을 구성하실 때 아이들의 주체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공들인 부분은 무엇인가요?

교육사업을 3년 차까지 수행해오며 저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어른의 시선'을 내려놓고 '아이들의 관점'으로 시선을 돌린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른들의 기대를 앞세웠다면 이제는 '아이들은 매주 귀한 토요일 시간을 왜 이곳에 내어줄까?'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먼저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들을 토대로 단원들에게 주체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커리큘럼 구성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춤을 실컷 출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춤을 좋아해서 모인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마음껏 움직이는 경험 그 자체입니다. 음악에 몸을 맡기고 온전히 춤에 빠져드는 그 즐거운 순간이 주체적인 성장을 위한 최고의 자양분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둘째, '모든 생각이 존중받는다'는 안전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동작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춤에 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생각도 틀리지 않으며, 나의 모든 시도는 존중받는다라는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작품에 참여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했습니다.

셋째, 나에게 집중하고 사유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커리큘럼의 시작을 온전한 나로의 집중에 두었고, 동화책을 읽듯 아이들과 둘러앉아 사소한 생각이라도 끊임없이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말을 다시 스스로 생각해보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조금씩 사고하는 힘을 길러갔습니다.

어른들의 거창한 문장보다는 아이들의 투박하지만 진솔한 시선을 중심에 두려고 노력했던 점, 그것이 올해 우리 커리큘럼의 가장 큰 핵심이자 변화입니다.

♡ 9개월의 여정 ♡

Q3 성장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처음에는 춤을 낯설어하던 아이들이 '예술가'로 변모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나요? 기억에 남는 단원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질문을 받고 머릿속에 많은 얼굴이 스쳐 지나가지만 사실 그 어느 누구 한 명만을 꼭 집어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단원 전체가 보여준 공통의 변화가 저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이번 기수는 초반에 그 어느 때보다 소극적인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닫힌 마음을 열기 위해 주강사 선생님들과 함께 때로는 개그맨처럼 망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다그치기도 하며 끊임없이 소통의 길을 찾았습니다.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가장 공들인 것은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공기가 바뀌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단원 전체의 눈빛에 '우리 할 수 있어요'라는 확신이 서리고 앞에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향해 한마음으로 에너지를 보내주던 그 찰나의 순간입니다. 저는 그때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의미의 한 배를 탔으며 단원들은 단순한 교육생을 넘어 서로를 지탱하는 예술가로 변모했음을 느꼈습니다.

단원들은 선생님들이 쏟아부은 온 마음과 애정을 가장 먼저 알아주었습니다. 연습이 끝나면 폭풍처럼 밀려오던 다정한 메시지들,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단체로 눈을 반짝이던 그 수십 개의 눈동자들...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개별적인 에피소드 이상의 거대한 감동이었습니다.

누구 한 명 뒤처지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단단하게 맞잡았던 이번 여정. 저에게 2025년은 단원 한 명 한 명의 변화가 모여 커다란 파도를 만들어낸, '예술을 통한 공동체의 교감'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해준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Q4 소통 서로 다른 나이와 배경을 가진 초3부터 중1까지의 단원들이 '하나의 팀'이 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갈등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되기 위해 시도했던 무용감독님/주강사 선생님만의 소통 방법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폭넓은 연령대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일은 저에게도 가장 큰 고민 지점이었습니다. 아이들마다 성장 단계와 이해도가 다르기에 모두에게 동일한 목표를 강요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희가 선택한 첫 번째 소통 방법은 연령별 맞춤 설계였습니다. 우선 나이 차에 따른 분화화를 통해 각 연령대에 맞는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눈높이에서 예술적 성취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커리큘럼의 토대를 단단히 다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무용극이라는 공동의 예술적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습 과정 내내 이곳에서는 나이의 위아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간을 완성하기 위해 서로를 어떻게 배려하고 이끌어주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공유했습니다.

작품 속으로 깊이 몰입하는 순간만큼은 나이도 환경도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강릉 꿈의무용단'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서로 지탱해주는 힘만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결국 기술적인 소통법보다 강력했던 것은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터득한 예술적 연대감이었습니다.

Q5 창작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등 순수 기초를 다지면서도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엉뚱한 상상력이 실제 안무나 연출로 구현된 재미있는 사례가 있나요?

꿈의 무용단 강릉은 무엇보다 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이들이 모인 곳입니다. 전체 장면을 구성하며 고민하던 중, 저는 정형화된 형식을 잠시 내려놓고 단원들에게 '너희가 가장 좋아하는 춤을 마음껏 춰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단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최근 유행하는 밈(Meme)과 챌린지 안무들을 쏟아내며 연습실을 순식간에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래만 틀어도 하하호호 웃으며 몸을 던지는 단원들의 순수한 에너지를 보며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단원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그 놀이를 작품 안으로 과감히 가져오기로 한 것이죠. 정해진 카운트 안에 자신들의 춤을 직접 대입해 보게 하자 단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신이 나서 주도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유희적 즐거움 위에 우리는 꿈의 무용단만의 예술적 색채를 덧입히는 과정도 잊지 않았습니다. 커피 씬에서는 단원들이 자신의 생각이 담긴 시를 직접 쓰고 그 언어를 몸짓으로 만드는 내밀한 경험을 가졌으며, 바다 씬에서는 물고기의 형상을 시각화하여 동료들과 협력하는 그룹 움직임을 통해 공동체의 감각을 익혔습니다.

특히 연극적 요소가 필요한 캐릭터 구축 과정에서는 아이들 각자의 습관과 생활 배경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 관찰의 결과물을 토대로 함께 장면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자신의 일상이 투영된 덕분인지 단원들은 마치 전문 연기자처럼 배역에 완전히 몰입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익숙하고 즐거운 '밈'에서 시작한 자신의 내면을 담은 '시'와 '관찰'로 확장되는 이 과정이야말로 아이들이 예술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게 만든 강릉 꿈의무용단만의 핵심 비결이었습니다.

♡ 무대 위의 엘리스 ♡

Q6 의미 11월 공연 <이상한 강릉의 엘리스>를 통해 관객(강릉 시민)들에게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공연을 마친 후 가장 뿌듯했던 피드백이 있다면요?

3년 차를 맞이하며 저는 예술교육의 결과물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무용감독으로서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공연의 핵심은 학습자들이 무대 위에서 온전히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거창한 메시지를 억지로 전달하려 하기보다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며 뽐어내는 생명력이 관객과 어른들에게 가장 큰 울림을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상한 강릉의 엘리스>는 단원 한 명 한 명의 개성이 살아있고 그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즐거움과 진지함, 그리고 하나

가 되었을 때의 몽클함을 관객들에게 그대로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관객들에게 특정한 교훈을 주려 하기보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우리 단원들의 존재 그 자체를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주인공으로서 가장 눈부시게 빛날 수 있도록 무대와 의상 등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완벽을 기하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많은 분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건네주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꿈무 잘하네"라는 한마디가 저에게는 가장 큰 피드백이자 위로였습니다. 그 짧은 인사 속에 우리 아이들의 변화와 저의 진심을 알아봐 주시는 마음이 모두 담겨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 못다한 이야기 ♡

Q7 바람 무용감독으로서, 또 이상한 나라를 먼저 경험해 본 '선배 엘리스'로서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선배 엘리스로서 단원들에게 어떤 대단한 존재로 기억되기보다는, 단원들이 춤추고 싶을 때나 마음이 힘들 때 언제든지 떠올릴 수 있는 마음의 고향 같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모험이 끝난 뒤에도 엘리스의 마음속에 그 이상한 나라가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듯, 단원들에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아무런 편견 없이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었던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훗날 우리 단원들이 문득 춤이 그리워질 때 혹은 삶의 위로가 필요할 때 '그때 은혜쌤한테 가면 참 즐거웠지, 다시 은혜쌤 찾아가 볼까?'라고 자연스럽게 마음먹을 수 있는 편안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단원들의 삶에서 무용이 단순한 배움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나 돌아와 쉴 수 있는 단단하고 따뜻한 터전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제가 무용감독으로서 단원들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깊은 흔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호랑이 선생님에서 귀여운 토끼 선생님이로 변신할 준비를 해야겠죠? ^^

Q8 보람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가장 가슴 벅찼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공연이 끝난 직후, 단독방에 단원들의 장문 메시지가 쏟아지며 '내년에도 꿈의 무용단 꼭 하게 해주세요!'라는 외침이 이어졌을 때 정말 짜릿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올해 꿈의 무용단 잘 잘했구나' 싶은 안도감과 함께 오히려 제가 단원들에게 큰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응원들은 제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최고의 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적인 순간에 찾아온 변화입니다. 저는 소극적이었던 단원들이 조금씩 자신만의 벽을 허물고 나오는 찰나를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말수도 없고 늘 대열의 맨 뒤에 서 있던 단원들이 어느덧 조금씩 앞으로 나오고,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환하게 웃으며 당당하게 춤을 추는 모습...

한 아이의 온전한 변화와 성장을 목격하는 순간, 그 경이로움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뿌듯함입니다. 단원들이 보여준 내일의 기대와 그 과정에서 일어난 한 명 한 명의 기적 같은 성장이 저에게는 지난 1년 중 가장 가슴 벅찬 수확이었습니다.

Q9 비전 내년, 그리고 앞으로의 꿈의 무용단 강릉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길 바라시나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작년까지만 해도 제 안에는 아주 거창한 꿈과 목표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3년 차를 지내며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앞으로의 꿈의 무용단 강릉은 '온전한 아이들만의 공간'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만은 아이들이 학교나 일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그저 마음껏 춤추고 떠들며 치열하게 땀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학교와는 또 다른 '나'가 되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훗날 자라나서 문득 뒤를 돌아보았을 때, 언제나 따뜻하게 떠올리고 돌아올 수 있는 '고향'이자 '터전'으로 남는 것. 이제

그 이상의 거창한 미래는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공간 안에서 매 순간 가장 빛나는 주인공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 아이들에게 한마디 ♡

Q10 아이들에게 한마디
마지막으로, 9개월간 땀 흘리며 함께해 준 우리 꿈의 무용단 강릉의 단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용감독 마지막 답변이 중복되었었군요. 수정입니다!

다운, 다현, 나연, 보민, 권지, 민서, 민지, 서윤, 시윤, 아현, 예나, 예린, 예서, 지원, 지윤, 지현, 하울, 유주, 규리, 다유, 시윤, 소윤, 한준, 희수, 연서, 채연, 예안, 수련, 아루, 재린, 이지, 윤정, 하윤, 은새, 라임, 연아, 라희...

너희는 2025년 선생님에게 찾아온 최고의 선물이었어. 함께 땀 흘리고 춤추며 보낸 이 시간들이 너희의 삶 속에서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마주할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단단한 희망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희와 함께해서 선생님도 참 많이 성장하고 행복했단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줘서 정말 고마워, 애들아!

더불어 꿈의 무용단 강릉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선생님들께도 마음을 전합니다. 한 분 한 분의 깊은 애정과 진심이 모여 지금의 이 공간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향 강릉으로 돌아와 무용수로, 또 지도자로 꿈을 꾸며 뿌리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저에게도 이 아이들처럼 마음껏 춤출 수 있는 소중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먼저 열어주신 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아이들과 함께 숨 쉬고 웃고 울며 걸을 지켜주신 우리 모든 선생님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응원하고 지켜봐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주강사 홍도은

나에게 꿈의 무용단 강릉은

병주고 약주고 다.



솔직히 가르치고 작품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너무나 힘들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을 때도 있거든요. 아이들 하나하나 챙기고, 안무 만들고, 연습시키고... 정말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빠듯한 일이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춤추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이상해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 아닐까? 힘들다고 투덜거렸던 모든 순간들이 한 번에 사라지면서, 동시에 '아, 내가 이걸 위해서 그 모든 걸 견뎌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이들이 무대에서 반짝이는 순간을 보면, 그동안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병주고 약주는 거죠. 힘들게 만들어놓고는 또 그 힘을 있게 만드는, 그런 묘한 매력! 꿈의 무용단에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건 바로 그 이상한 기분 때문인 것 같아요.

🌸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이번 2025년 꿈의 무용단 강릉에서 맡으신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3년차 주강사 홍도은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작년과 조금 다른 접근을 했어요. 작년에는 여러 개의 작은 작품들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하나의 커다란 작품 틀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보이게 만들어줄까'에 집중했습니다. <이상한 강릉의 엘리스> 라는 큰 그림 속에서 각각의 아이들이 자신만의 색깔로 빛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시즌의 가장 큰 목표였어요. 제 역할은 작년과 동일하게 작품을 만들고 아이들을 동시에 가르치는 것이었지만, 올해는 특히 아이들이 춤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무엇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춤출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썼어요.

아이들이 진짜 행복하게 춤추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 꿈의 무용단 강릉과 나, 그리고 우리 ♥

Q1 기획의도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꿈의 무용단 강릉이 <이상한 강릉의 엘리스>라는 작품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그리고 ‘강릉’이라는 지역적 색채를 ‘엘리스’라는 고전에 어떻게 녹여내고자 하셨나요?

이번 작품은 무용감독님의 디렉팅을 받아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감독님께서 강릉과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를 연결하려는 명확한 의도와 접근방법으로 큰 틀을 만들어주셨어요. 저는 그 틀 안에서 ‘이 집에서 일어나는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씬들을 구성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서로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듯이, 엘리스도 이상한 나라에서 온갖 이상한 캐릭터들을 만나잖아요. 하지만 결국 ‘춤’이라는 공통언어가 엘리스와 이상한 나라의 모든 존재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강릉이라는 우리의 터전에서 만난 아이들이 각자 다른 모습이지만, 춤을 통해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이상한 강릉의 엘리스’가 되는 거라고 봤습니다.

Q2 교육철학 꿈의 무용단은 단순한 기능 습득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춤으로 만드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커리큘럼을 구성하실 때 아이들의 주체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공들인 부분은 무엇인가요?

저는 아이들의 주체성을 바로 끌어내려 하기보다는, 그 전 단계에 더 집중했습니다. 아직 아이들은 무용에 대한 개념이나 몸을 사용하는 방법,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에 서툴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아이들이 춤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올바른 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주면서도, 무엇보다 춤을 추며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썼습니다.

아이들이 “춤이 재밌다”, “내 몸으로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구나” 하는 경험들을 충분히 쌓아야, 비로소 “내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라는 주체적인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겨난다고 생각해요. 그 기반 없이 주체성만 요구하면 아이들만 어려워하더라고요. 결국 즐거운 경험이 주체성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 9개월의 여정 ♥

Q3 성장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처음에는 춤을 낯설어하던 아이들이 ‘예술가’로 변모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나요? 기억에 남는 단원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아이들이 무대에서 완전히 자신만의 이상한 세계에 빠져서 춤을 출 때였어요. 처음에는 “선생님, 부끄러운데 어떡해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하며 계속 확인을 구하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도 보지 않는 연습실 구석에서도 혼자서 동작을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연 당일 무대 위에서 정말 당당하게, 눈이 반짝반짝 빛나며 자신을 온전히 표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 이 아이들이 진짜 예술가가 되었구나’ 싶었어요.

특히 가장 소극적이었던 한 친구가 공연에서 정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춤추는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즐기는 사람이 최고라고, 즐기며 공연했던 아이들 모두가 예술가였습니다.

Q4 소통 서로 다른 나이와 배경을 가진 초3부터 중1까지의 단원들이 ‘하나의 팀’이 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갈등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되기 위해 시도했던 무용감독님/주강사 선생님만의 소통 방법은?

사실 예상했던 갈등이나 어려움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저 자신이 가장 큰 ‘문제’였을까요? 저는 거의 개그맨처럼 수업했거든요. 제가 수업을 하러 온 건지 아이들을 놀아주고 놀리러 온 건지 모를 때가 있는데 이게 제 소통 방식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언어로 즐겁게 수업하는 것, 그게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경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 1, 2기 친구들이 정말 좋은 선배로 성장해준 덕분이 컸어요. 학창 시절이 딱 예민한 시기잖아요. 친구가 가장 소중하고 또래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인데도, 질투하는 친구 하나 없이 무용단의 단원으로서 하나의 팀을 완성해 나갔어요. 어른들도 갈라치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 대견하게도 우리 단원들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아는 현명한 친구들이었어요.

Q5 창작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등 순수 기초를 다지면서도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엉뚱한 상상력이 실제 안무나 연출로 구현된 재미있는 사례가 있나요?

제가 맡은 학생들은 아직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구현해내는 것을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전체적인 틀과 구성은 제가 정해주되, 특정 구간에서는 “여기서는 너희가 좋아하는 춤을 마음껏 춰봐”라고 완전한 자유를 주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춤의 한 장면들을 특별한 미션이나 선물처럼 안무에 자연스럽게 녹여냈는데, 그 순간들이 오히려 가장 생동감 있고 매력적인 장면들이 되더라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아이들 각자의 개성과 색깔이 담긴 움직임들이 작품 전체를 더욱 풍성하고 살아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Q6 의미 11월 공연 <이상한 강릉의 엘리스>를 통해 관객(강릉 시민)들에게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공연을 마친 후 가장 뿌듯했던 피드백이 있다면요?

저는 ‘함께 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인터뷰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도 혼자서는 그 이상한 세계를 헤쳐나갈 수 없었잖아요. 다양한 캐릭터들과 만나고 소통하면서 성장해나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춤이라는 공통언어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Q7 변화 강릉단오제 참여부터 이번 정기 공연까지, 아이들은 강릉이라는 터전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아이들이 춤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강릉이라는 지역 구석구석을 여행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춤으로 문화를 느끼고, 문화를 만들고, 결국 문화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죠.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강릉 시민으로 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강릉이라는 터전이 언제나 아이들에게는 꿈을 키웠던 소중한 고향, 함께 춤추며 행복했던 추억이 깃든 특별한 공간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 “나는 강릉에서 춤을 찾던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봐요.

♥ 못다한 이야기 ♥

Q8 바람 주강사로서, 또 이상한 나라를 먼저 경험해 본 '선배 앨리스'로서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아이들에게는 "함께 꿈꿨던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호기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보여준 어른으로요.

무용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아이들이 자신만의 '이상한 나라'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아이들이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그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한 번 더 해볼까?" 하고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남고 싶습니다.

Q9 의미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가장 가슴 벅찼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미성숙한 아이들이 공연이던 연습이던, 그 순간에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해서 춤을 출 때인 것 같아요.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평소에는 산만하던 아이도 춤 안에서만큼은 자신만의 세계에 완전히 몰입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전율이 일어어요.

특히 처음에는 "춤은 어려워요", "못 하겠어요" 하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무대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성장의 순간들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Q10 비전 내년, 그리고 앞으로의 꿈의 무용단 강릉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길 바라시나요?

꿈의 무용단 강릉이 단순히 춤을 배우는 곳을 넘어서,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서로를 응원하는 진짜 '꿈의 공간'이 되었으면 해요.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와서 각자의 색깔로 춤출 수 있고, 졸업한 선배들이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이 강릉을 넘어 더 큰 무대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출발점 역할을 하는 무용단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 아이들에게 한마디 ♥

Q11 아이들에게 한마디 마지막으로, 9개월간 맘 흘리며 함께해 준 우리 꿈의 무용단 강릉의 단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렇게 어린 나이에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힘을 느껴본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경험인지 너희들은 아직 모를 거야! 우리는 춤을 통해, 춤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만났고, 결국 그 마음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었어요.

9개월 동안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눴고, 이 기억들이 너희가 선생님 나이가 될 때까지 - 아니, 그보다 더 오래도록 너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요.

춤 안에서 만난 우리의 우정과 성장의 순간들을 절대 잊지 말고, 앞으로도 용기 있게 너희만의 무대를 만들어가길!



주강사 양설희

나에게 꿈의 무용단 강릉은

순수한 **담방울** 이다.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할 때만 생기는 것. 꿈의 무용단에서 본 아이들의 땀은 기술의 흔적이 아니라, 살아 있음 그 자체였습니다.

🌸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이번 2025년 꿈의 무용단 강릉에서 맡으신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일상을 예술로, 예술을 일상으로' 질문하는 안무가 양설희입니다. 2025년 꿈의 무용단 강릉에서 주강사이자 안무가로 참여하며, 아이들과 함께 작품 <이상한 강릉의 앨리스>를 창작했습니다. 저의 역할은 아이들이 자기 움직임을 발견하도록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 꿈의 무용단 강릉과 나, 그리고 우리 ♥

Q1 기획의도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꿈의 무용단 강릉이 <이상한 강릉의 앨리스>라는 작품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그리고 '강릉'이라는 지역적 색채를 '앨리스'라는 고전에 어떻게 녹여내고자 하셨나요?

<이상한 강릉의 앨리스>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강릉에 사는 아이들은 강릉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였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강릉의 바다, 커피 축제, 대나무 숲. 모두 '특별한 관광지'이기 전에 '너무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익숙한 강릉을 예술로 낯설게 만드는 것. 아이들은 자신이 매일 보던 풍경을 몸으로 다시 경험했고, 그 순간 강릉은 배경이 아니라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앨리스'였습니다. 저희는 (창작진) 한 명의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앨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이 누군가의 모험담이 아니라, 아이들 각자의 이야기이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강릉에 사는 모든 아이가 앨리스다." 이 문장이 이번 작품의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Q2 교육철학 꿈의 무용단은 단순한 기능 습득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춤으로 만드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커리큘럼을 구성하실 때 아이들의 주체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공들인 부분은 무엇인가요?

저는 아이들이 '배운 춤'을 추기보다, 각자의 '자기 춤'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저 또한 어릴 때 주입식 무용 교육을 받으며, 어느 순간 제 움직임을 잃어버렸고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몸으로 나를 표현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에서 가장 공들인 것은 기술이 아니라 창작 방식이었습니다.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 친구에게 하지 못한 말, 자기 자신에게 남기고 싶은 말. 아이들 스스로가 감정들을 제스처로 만들고, 움직임으로 바꾸고, 장면으로 확장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추는 법'보다 '왜 움직이는지'를 먼저 갖도록 하는 것. 그게 이번 커리큘럼의 핵심이었습니다.

♡ 9개월의 여정 ♡

Q3 성장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처음에는 춤을 낯설어하던 아이들이 '예술가'로 변모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나요? 기억에 남는 단원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예술가는 혼자 작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의 중요한 키워드도 '소통'이었습니다.

한 수업에서 아이들이 서로의 몸으로 징검다리를 만들어 건너는 창작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더 잘하나에 집중하던 아이들이, 점점 결과보다 과정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시도를 기다리고, 의견을 존중하며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이들에게서 '함께'를 배웠습니다.

Q4 소통 서로 다른 나이와 배경을 가진 초3부터 중1까지의 단원들이 '하나의 팀'이 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갈등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되기 위해 시도했던 무용감독님/주강사 선생님만의 소통 방법은?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가 있고, "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다."

자기 감정과 생각이 없는 배려는 금방 지치고, 타인에 대한 감각 없는 자기표현은 쉽게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를 말하는 연습을 했고, 그 다음 '너'를 듣는 연습을 했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씬이 물고기 파트입니다. 각자가 물고기 움직임을 터득하고, 타인을 인식하고, 공간을 인식하며 단체 움직임을 창작했습니다.

Q5 창작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등 순수 기초를 다지면서도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엉뚱한 상상력이 실제 안무나 연출로 구현된 재미있는 사례가 있나요?

"모든 움직임은 춤이 될 수 있어."
"너라면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고 싶어?"

아이들은 창작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를 모를 뿐입니다. '각목 토끼' 장면에서 토끼들이 각목으로 길을 만드는 장면은 전부 아이들의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단 하나, "길을 만들어보자"라고만 제시했을 뿐입니다.

아이들에게 창작하고 놀 수 있는 울타리만 만들어준다면, 거침없고 두려움 없는 창작자가 됩니다. 창작을 놀이처럼, 놀이를 작품으로 거뜬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 무대 위의 엘리스 ♡

Q6 의미 11월 공연 <이상한 강릉의 엘리스>를 통해 관객(강릉 시민)들에게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공연을 마친 후 가장 뿌듯했던 피드백이 있다면요?

이 작품을 통해 관객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당신이 사는 곳은 아직도 낯설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강릉은 아름다운 도시지만, 익숙함은 아름다움을 지웁니다. 아이들 또한 이번 작품을 통해 자기가 살던 도시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게 보기를 시도했습니다.

관객들(강릉 시민)도 이번 공연을 통해 자기 일상을 관광객처럼 낯설게 보길 바랍니다.

Q7 변화 강릉단오제 참여부터 이번 정기 공연까지, 아이들은 강릉이라는 터전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요?

아이들에게 강릉은 이제 '사는 곳'이 아니라 '함께 춤췄던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다를 보면, 대나무 숲을 보면, 커피를 보면, 무대에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던 순간이 함께 떠오를 겁니다. 단연코 살면서 온몸으로 몰입해 무언가를 완주하는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

이 경험은 아이들에게, 앞으로 무엇을 하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 못다한 이야기 ♡

Q8 바람 주강사로서, 또 이상한 나라를 먼저 경험해 본 '선배 엘리스'로서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다양함을 경험시켜준 선생님' 정도면 좋겠네요.

Q9 보람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가장 가슴 벅찼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평가와 결과에 떠밀려 '잘하고 싶다'가 아닌, 스스로의 노력에 만족할 때. 무대 위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춤을 출 때. 아이들 서로가 '잘했어'라고 말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많은 무용수를 봤지만, 그 어떤 거짓도 없고 과장도 없는 순수한 땀방울로 무대에 몰입하는 무용수는 꿈의 무용단 강릉뿐이었습니다.

Q10 비전 내년, 그리고 앞으로의 꿈의 무용단 강릉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길 바라시나요?

저는 매년 아이들에게 발전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결과를 바라게 돼서요.

더 잘 추지 않아도 되고, 더 멋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2026년에도 친구들과 무대에서 망설임 없이 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 아이들에게 한마디 ♡

Q11 아이들에게 한마디
마지막으로, 9개월간 땀 흘리며 함께해 준 우리 꿈의 무용단 강릉의 단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넘어지고 지쳐도 일어서는 너희들이 있어서 선생님도 일어설 수 있었어, 고마워.

앞으로 더 많이 넘어지고, 힘든 일이 있어도 지금처럼 일어나는 방법을 찾아.

두려워하지 말고.

인터뷰 *interview*



주강사 김조안

나에게 꿈의 무용단 강릉은

가르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운 수업 이다.

🌸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이번 2025년 꿈의 무용단 강릉에서 맡으신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2025년 꿈의 무용단 강릉에서 주강사로 활동한 김조안입니다.
수업과 연습 과정에서 동작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옆에서 도우며, 전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꿈의 무용단 강릉과 나, 그리고 우리 ♡

Q1 기획의도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꿈의 무용단 강릉이 <이상한 강릉의 엘리스>라는 작품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그리고 '강릉'이라는 지역적 색채를 '엘리스'라는 고전에 어떻게 녹여내고자 하셨나요?

<이상한 강릉의 엘리스>는 아이들이 늘 살아가는 공간인 강릉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와 커피처럼 강릉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요소들을 장면으로 풀어내며, 익숙한 공간이 상상의 무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Q2 교육철학 꿈의 무용단은 단순한 기능 습득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춤으로 만드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커리큘럼을 구성하실 때 아이들의 주체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공들인 부분은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따라오기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주제 안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에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아이들이 표현에 막힐 때는 정답을 주기보다는 다양한 예시나 움직임의 소스를 던져주며, 그 안에서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 9개월의 여정 ♡

Q3 성장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처음에는 춤을 낯설어하던 아이들이 '예술가'로 변모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나요? 기억에 남는 단원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이번 꿈의 무용단 정기공연에는 선생님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만큼 많은 소품과 의상들의 전쟁이었는데요. 많은 훈련을 통해 무대 전에는 늘 각자의 소품과 의상을 챙겨 대기하는 등직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대기실에서는 팀원들끼리 자연스럽게 연습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분명히 한 단계 성장했다고 느꼈습니다.

Q4 소통 서로 다른 나이와 배경을 가진 초3부터 중1까지의 단원들이 '하나의 팀'이 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갈등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되기 위해 시도했던 무용감독님/주강사 선생님만의 소통 방법은?

서로를 이해하도록 돕는 방식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상황을 함께 정리해 주며 스스로 납득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 간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좁혀졌고, '우리'라는 팀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5 창작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등 순수 기초를 다지면서도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엉뚱한 상상력이 실제 안무나 연출로 구현된 재미있는 사례가 있나요?

작품 중 '커피 씬'을 작업할 때, 아이들이 각자 정한 주제에 맞춰 시를 쓰고 그 시를 바탕으로 움직임의 만들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아이들만의 엉뚱하고 솔직한 동작들 중 핵심적인 부분을 모아 하나의 군무 장면으로 구성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나오지 않았을 동작들이 많이 나와, 작업하는 저 역시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 무대위의 엘리스 ♡

Q6 의미 11월 공연 <이상한 강릉의 엘리스>를 통해 관객(강릉 시민)들에게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공연을 마친 후 가장 뿌듯했던 피드백이 있다면요?

'우리 모두가 강릉에 사는 엘리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익숙한 일상과 공간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며, 각자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이상한 나라'가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느껴 보길 바랍니다.

작품이 다채롭고 아이들의 움직임이 다 살아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었다는 피드백이 가장 뿌듯했습니다.

Q7 변화 강릉단오제 참여부터 이번 정기 공연까지, 아이들은 강릉이라는 터전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요?

강릉이라는 공간에서 계속해서 무대를 경험하며, 이 도시가 아이들에게 움직임으로 기억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오제부터 정기 공연까지 이어진 시간 속에서, 무대에 서는 경험을 통해 강릉을 더 가까이 느끼고 자연스럽게 애정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 못다한 이야기 ♡

Q8 바람 무용감독(주강사)으로서, 또 이상한 나라를 먼저 경험해 본 '선배 엘리스'로서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조금 먼저 길을 밟아본 선배 엘리스로서, 앞에서 이끌기보다는 옆에서 함께하며 스스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도와준 존재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지만, 필요할 때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선생님이었으면 합니다.

Q9 보람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가장 가슴 벅찼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정기공연 무대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보여주고 내려온 뒤, 아이들이 후련해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가장 가슴 벅찼습니다. 그 순간을 가까이에서 함께할 수 있었다는 점이 큰 보람으로 남았습니다.

Q10 비전 내년, 그리고 앞으로의 꿈의 무용단 강릉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길 바라시나요?

앞으로도 꿈의 무용단 강릉은 아이들이 즐겁게 춤추며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무용가의 길을 걷지 않더라도 춤을 즐길 줄 아는 예비 예술인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 아이들에게 한마디 ♡

Q11 아이들에게 한마디 마지막으로, 9개월간 땀 흘리며 함께해 준 우리 꿈의 무용단 강릉의 단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준비해 온 만큼 무대 위에서 해내는 너희들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어. 너희의 에너지는 큰 축복이야.

그 에너지 잃지 말고, 지금처럼 밝게 힘차게 자라줘~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토끼'다.

아이들에게 항상 영감을 받습니다. 꿈의 무용단 강릉은 앨리스의 토끼처럼 나의 상상력을 이끌어 주는 안내자입니다.

연출 김재현



본인 간단 소개 _ 성함과 이번 공연에서 맡으신 역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꿈의 무용단 강릉 정기공연 레파토리 연출을 맡은 김재현입니다.

✦ 기획과 연출 의도 ✦

Q1 올해 공연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강릉이라는 공간으로 가져왔습니다. 연출하시면서 '강릉다움'과 '동화 속 나라'를 무대 위에 섞기 위해 가장 공들인 연출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A 아이들에게 강릉은 익숙한 동네를 넘어 산과 바다 그리고 역사가 공존하는 하나의 거대한 판타지 공간임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처음 이 작품을 구상하며 '아이들의 시선에 비친 강릉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제가 강릉에서 자라며 느꼈던 단편적인 기억을 넘어 우리 아이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더 특별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출의 핵심은 익숙한 동화적 장치에 강릉의 정체성을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헌 대나무의 고풍스러운 멋, 푸른 바다 그리고 커피 향이 흐르는 강릉의 풍경을 '앨리스의 세계'와 결합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춤추며 자신들이 사는 이 터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공간인지 오감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데 가장 큰 공을 들였습니다.

✦ 명장면 ✦

Q2 연출가로서 관객들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Best 장면'은 무엇인가요?

A 강릉의 대나무 숲을 지나 펼쳐지는 비현실적인 판타지, 그 완성은 결국 아이들의 몸짓이었습니다. 연출로서 가장 공들인 장면은 앨리스가 현실을 넘어 '이상한 강릉'으로 진입하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강릉 오죽헌의 대나무를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거대 세트로 구현하고 여기에 환상적인 영상미를 더해 관객들이 순식간에 비현실적인 세계로 몰입할 수 있도록 연출했습니다.

여타 아동 공연과는 차별화된 고유의 레퍼토리를 만들기 위해 시각적 완성도에 많은 공을 들였지만, 사실 이 모든

장치는 아이들을 빛내기 위한 배경일 뿐입니다. 거대한 세트 사이를 누비며 스스로 장면을 완성해 나가는 아이들의 생동감 넘치는 몸짓을 볼 때, 연출가로서 가장 큰 전율과 감명을 받았습니다.

✦ 메시지 ✦

Q3 관객들이 공연을 보고 어떤 마음을 안고 돌아가길 바라셨나요?

A 대단한 평가보다는 '참 대견하다'는 따뜻한 눈길을 안고 가셨으면 합니다.

이 무대는 아이들이 흘린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아이들은 춤을 통해 성장했고 그 과정을 무대 위에 오롯이 담아냈습니다.

그저 어른들이 아이들의 무대를 있는 그대로 보고 진심으로 응원하며 자랑스러워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그 격려의 마음이 세상 그 어떤 평가보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공연 비하인드 ✦

Q4 리허설이나 본 공연 중, 무대 뒤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살짝 공개해 주세요.

A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토끼 역할을 맡은 친구의 돌발 활약입니다. 관객과 아주 가까운 무대 밑에서 홀로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라 제작진은 내심 아이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했었습니다. '잘해낼 거야'라고 서로를 다독이면서도 시선은 떼지 못했죠.

그런데 막상 조명을 받은 아이는 누구보다 프로다운습니다.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무대를 여유롭게 리드하는 모습에 저희 제작진은 큰 감동과 함께 박장대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가능성은 어른들이 정해놓은 틀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 소감과 비전 ✦

Q5 1년간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본 소감과, 앞으로 꿈의 무용단 강릉이 더 발전하기 위해 연출가로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또는 계획이 있다면요?)

A 1년 전 수줍게 첫 인사를 나누던 아이들이 당당히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관객 앞에 섰습니다. 그 변화를 지켜보는 것만큼 연출가로서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단단해지는 순간을 목격할 때마다 예술감독님, 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교육자와 교육생이 아닌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꿈의 무용단 강릉에 해주고 싶은 조언이자 바람이 있다면 지금처럼 함께 성장하고 소통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라는 약속 아래 아이들이 자신의 몸짓으로 세상을 향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저 또한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기쁨, 강릉의 아이들이 그려낼 더 큰 내일을 응원합니다."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어린 꿈나무들에게 에너지를 얻는 충전이다.

음악감독 최원형



본인 간단 소개 _ 성함과 이번 공연에서 맡으신 역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음악감독과 작곡을 맡게된 최원형 입니다.

✦ 음악 컨셉 ✦

Q1 <이상한 강릉의 엘리스>라는 제목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소리가 떠오르셨나요? '이상한 강릉'과 '엘리스'를 음악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신 특별한 악기나 사운드가 있나요?

A <이상한 강릉의 엘리스>라는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신비롭기도 하면서 익살스럽고 재미있는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통통 튀는 우드 계열의 퍼커션과 벨 사운드를 중심으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밝고 경쾌한 음색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상함이 무섭지 않고 즐겁게 느껴지길 바랐습니다.

✦ 교육으로서의 무용음악

Q2 성인이 아닌 아이들이 춤을 추는 음악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작곡 과정에서 특별히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장르에 국한되지 않으려 신경 썼습니다.
되도록 여러 다채로운 색감과 느낌으로 아이들이 상상하기 좋은 곡들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음악이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상상의 여지를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 작곡가's Pick! ✦

Q3 이번 공연 음악 중, "이 곡만큼은 꿈의 무용단 강릉 그 자체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요?

A 모든 곡에 애정을 쏟았기 때문에 고르기 어렵습니다만, 꼭 뽑아야 한다면 토끼 씬 전체 음악입니다.
이유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이 보여 무대를 볼 때 삼촌 미소를 지어버렸습니다.

Q4 이번 공연은 60분간 쉬 없이 이어지는 '무용극'으로서 오프닝부터 엔딩까지 다양한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주요 장면(혹은 곡)마다 어떤 분위기나 특징을 담고자 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오프닝은 엘리스의 한가롭고 평화롭지만 조금은 지루한 일상을 표현하고자 했고, 토끼 씬은 그 일상을 깨고 스며드는 신비함과 엘리스의 호기심, 약간의 두려움과 모험을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상한 강릉 씬과 커피 씬은 다채로운 모습의 강릉과 상상 속 세계의 융합, 그 속의 오묘함과 익살, 웅장함 등 다양한 느낌을 믹스하려 신경 썼습니다.
바다 씬은 그야말로 바다 속의 고요함과 평화롭게 유영하는 바다생물을 악기 소리로 표현하려 신경 썼습니다. 그 느낌이 잘 묻어나는 것 같은 메인 악기로 팬드럼을 써보았는데 나름 적중한 듯해서 다행이라 생각이 드네요.
파도 씬과 부채 씬은 엘리스가 겪는 역경을 타악 중심으로 표현했으며, 부채와 조화로움을 생각해 전통적인 느낌을 가미했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엘리스의 성장을 표현할 땐 현악과 관악으로 가슴 벅찬 느낌을 담으려 신경 썼습니다.
마지막 씬은 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갔지만 엘리스의 마음속에 이미 풍부하게 남아 있고 피어난 꿈들을 회상하는 의미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계 소리와 오케스트라로 웅장한 막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 작업 비하인드 ✦

Q5 곡을 만드는 과정에서 음악이 수정되거나 새롭게 탄생한 재미있는(또는 기억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요?

A 제 욕심이 과했던 결과 작업 초반 음악이 박자가 좀 어렵게 나와 아이들과 안무가분들이 좀 고전하는 바람에 좀 더 쉽고 편안한 박자로 편곡이 다시 진행되었습니다...만
뒤로 갈수록 다시 또 제 욕심이 다시 피어난 리듬들이 곡들에 들어갔지만, 결국 완벽하게 안무를 짰 안무쌤들과 무리 없이 끝까지 소화해버린 아이들이 너무너무 감탄스럽고 멋졌습니다.

✦ 현장방문 소감 ✦

Q5 꿈의 무용단 강릉의 정기공연을 위해 멀리서 강릉까지 직접 방문하셔서 리허설 때 음악도 체크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정기공연을 보시고서 작곡가로써 어떤 소감과 생각이 드셨나요?

A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저의 음악에 춤추며 행복한 모습에 너무 큰 보람과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작곡가로서 적지 않은 자부심도 느꼈고, 언제나 아이들과의 작업은 어른들도 배우고 얻는 것이 참 많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 소감 ✦

Q5 1년간 함께하며 느낀 소감과, 음악감독으로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격려의 한마디.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작업하는 동안 참 설레기도 힘들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가 되어 해냈다는 성취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음악 감독으로 해주고 싶은 말보다, 그들의 꿈을 꾸는 것과 설렘이 가득한 삶이 부러운 아저씨로서 말하고 싶네요.
그 꿈과 설렘을 소중히 무럭무럭 잘 키워 행복 가득한 앞날이 가득하기를... 앞으로의 계획은 저에게 아직 남아있는 꿈과 설렘, 상상력을 끌어모아 꿈의 무용단 강릉의 여러 작품 중 일부가 되도록 계속 힘써야지요. 또 작품 해야지요. ㅎㅎ

나에게 꿈의 무용단은

모두의 열정을 태우는, 놀이가 되고 축제가 되는 **볼꽃**이다.

행정운영 이서영



본인 간단 소개 _ 성함과 이번 공연에서 맡으신 역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꿈의 무용단 강릉을 맡은 행정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서영입니다.
단원들이 무용으로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무용감독님과 강사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행정을 지원하며 운영의 전반적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 기획과 브랜딩 ✦

Q1 올해 <이상한 강릉의 엘리스>는 독특한 컨셉이 작품의 매력을 대중(시민, 학부모)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 물 제작이나 대외 소통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이번 공연작품의 포스터는 '이상한 강릉의 엘리스' 공연의 클라이막스인 '강릉 바다'가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엘리스가 함께 춤을 추며 바다 한 가운데를 모험하고, 주변 바다 친구들도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표현했는데, 모두 어떤 첫인상으로 인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 꿈의 무용단 강릉과 사촌 지간이라 할 수 있는 '꿈의 극단 강릉'과 공동 홍보를 진행해 의미가 더 깊었습니다. 두 예술단 모두 '강릉의 바다'를 배경으로 하여 포스터도 바닷속 이미지로 통일감을 주었는데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같은 바다여도 무용단은 움직임으로, 극단은 연기로 각자의 색깔에 맞게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이 점이 시민들과 관객들에게는 무용단과 극단의 각 특색과 의미를 비교해서 보는 즐거움을 드리며 효과적으로 각인되지 않을까 합니다.

✦ 교육 철학 (운영 철학) ✦

Q2 꿈의 무용단 운영에 있어서 강사님들은 수업에, 아이들은 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가장 공들여 조성한 교육 환경이나 운영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 안전 관리, 간식, 소통 채널 일원화 등)

A 무엇보다 단원들이 마음 편하게 즐기면서 올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참 솔직합니다. 자기가 싫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니까요. 다행히 2, 3기 단원들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주었고, 모난 친구들 없이 서로 이해하며 어울리는 단원들이 함께 해주어 금세 분위기가 자연스레 잡혔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꿈의 무용단은 무용감독님과 강사 선생님들, 그리고 참여 인력이 없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곁에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방해하지 않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성찰하는 모습, 그리고 현역 무용가로서 매주 귀중한 토요일 새벽에 10시 무용단 수업 하나만을 위해 서울, 춘천에서 달려와 수업해주시는 열정은 그 어떤 값어치로도 환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깊은 노고를 단원들과 학부모님들께 다 전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았는데, 이렇게 결과자료집을 통해서나마 선생님들의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운영 면에서는 공연이 임박한 후반부에 명절, 연휴, 지역의 여러 행사와 대회들이 겹치며 단원들의 스케줄 관리가 큰 난관이었습니다. 연습 불참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달려와 주는 단원들을 보며 운영진으로서도 큰 믿음을 얻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끝까지 연습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약 37명의 인원이 대외 활동을 할 때는 항상 안전이 제일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감독님과 강사 선생님들께서 밀착 케어를 해주시고 단원들도 잘 따라준 덕분에 야외활동과 캠프 활동을 무사히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로를 챙기며 함께해 온 단원들, 그리고 함께 단원들을 지켜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가 정말 한 팀이구나'를 느끼는 모든 순간들이었네요.

✦ 성장 ✦

Q3 수업 시간 내의 변화는 강사님들이 잘 알지만, 수업 전후의 모습은 담당자님이 가장 잘 아실 텐데요. 아이들이 9개월이 지나며 어떻게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담당자님만 아는 아이들의 귀여운 변화가 궁금합니다.

A 최근 결과자료집 제작을 위해 1회차부터 43회차까지의 사진을 쭉 훑어보았습니다. 불과 9개월 사이 훌쩍 자란 키와 성숙해진 얼굴들을 보며 아이들의 성장 속도에 내심 놀랐어요. 올해는 제가 연습실에서 직접 사진을 찍으며 아이들과 함께 연습한 것처럼 지냈기에, 40명 모두의 변화가 더 애뜻하게 다가옵니다.

처음엔 부모님 권유로 와서 쭈뼛거리거나 표정이 굳어있던 아이들이, 회차가 거듭될수록 무용으로 몸을 쓰는 것에 익숙해지며 마음이 풀어지고 변해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수영 은메달을 땀다며 메달을 갖고 와서 자랑하던 귀여운 단원. 유일한 남자 단원으로서 처음엔 어색해하다가 어느새 누나, 친구들과 어울려 대화가 부쩍 늘게 된 단원의 모습. 캠프 때 같은 방을 쓰게 되면서 이후 친하게 지내며 연습 때마다 재잘대며 붙어 지내던 단원들이 생각나네요.

학교 학급보다 약 2배의 인원, 그리고 초3부터 중1까지 다양한 나이대가 섞인 이 '작은 사회' 속에서 아이들은 말로 하지 않아도 몸으로 부대끼며 관계 맺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용 전공으로 진학해 떠나는 친구들은 아쉽지만 꿈을 응원해 주고 싶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하게 된 단원들도 내년엔 끝까지 함께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단원들이 몸과 마음으로 자라나는 모습이 저에게 가장 큰 동기함이자 꿈의 무용단 본질의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 소통 ✦

Q4 모두가 '꿈의 무용단'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했던 담당자님만의 소통 노하우(또는 민원 해결 팁)가 있을까요?

A 모든 청소년 활동이 그렇 듯, 단원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1·2년차의 무용단을 지나오며, 단원 및 학부모님과의 여러 갈래의 소통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성을 인지했습니다. 무용 감독님과 협의 하에 행정담당이 네이버 밴드를 공식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여 창구 역할을 담당했고, 덕분에 훨씬 공식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타가 날 때도 있었지만 최대한 바른 안내를 해드리고자, 공지사항이 한 번에 눈에 가시적으로 잘 보여서 혹시나 빠짐 없이 보실 수 있도록 내심 신경을 썼습니다. 정말 중요해서 꼭 숙지해야 되는 내용들은 문자로 다시 한 번 보내드렸는데, 혹시 귀찮아하시진 않았나 모르겠네요.

사실 공지의 핵심 내용은 다 무용감독님이 꼼꼼히 챙겨 알려주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질문을 빌어 늘 뒤에서 애써주시는 무용감독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창작 ✦

Q5 아이들의 엉뚱한 상상력과 감독님의 연출이 현실이 되려면 의상, 소품, 무대 등 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웠거나, 무대에서 빛을 발해 뿌듯했던 소품/장치에 얽힌 에피소드가 있나요?

A 사실, 무대 후반부에 등장하는 부채는 단순한 소품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채를 너희들의 바다이자 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무용감독님의 요청에 따라, 아이들이 하얀 백선 부채에 직접 수채화 물감으로 색을 입혔거든요.

자세히 보면 아이들마다 색깔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어떤 친구는 경포 해변처럼 깊은 푸른색을, 또 어떤 친구는 안인해변의 바다색처럼 맑은 옥색을 칠했더라고요. 각자의 개성과 꿈이 담긴 부채기에 무대에서 빛을 한 것 같습니다. 직접 만든 소품이다 보니 애착도 생긴 것 같아요. 다른 친구의 부채를 들지 않고 꼭 자신의 부채를 찾아서 연습하더라고요. 스스로 소품을 만들고 관리하는 과정을 통해, 무용에 대한 마음도 자라나 보였습니다.

또, 공연 무대를 위한 가성비와 디테일을 위한 우리 창작인력들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소품 제작 과정인데요. 예산 절감을 위해 무용감독님이 극단 강사 선생님 한 분과 함께 직접 토끼들이 들고나오는 각목을 초록색 페인트로 손수 칠한 거랍니다! 대형 커피잔 소품을 구할 수 없어 3D 프린터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잔 하나를 출력하는 데 8시간이 걸려, 업체에서는 일주일 내내 6개의 잔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주문했던 인쇄 소품의 결과물이 예상보다 제 마음에 쏙 들지 않아 혼자 속상해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강사 선생님들께서 '아니에요, 정말 괜찮은데?' 진심으로 말씀 해주셔서 내심 위로가 되었습니다.

막상 무대 위에서 아이들의 손에 들려 멋지게 활약하는 잔을 보고 현대 기술에 감사했던 웃지 못할 기억도 있네요. 특히 공연 중에 앨리스가 잔을 놓쳐 깨지는 것을 표현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깨질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연습하는 동안 수차례 바닥에 뒹굴면서도 끝까지 안 깨지고 용하게 버텨준 그 '강철 3D 커피잔'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또, 무대 위에는 대나무 형상을 한 7m 높이의 거대한 원통 4개가 등장합니다. 공연 하루 전 리허설 때었는데, 원통이 내려올 때 객석에서 하얀색 바닥면이 보인다는 이유로 연출님과 무대 크루, 선생님들이 모두 달려붙어 후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때 연출님께서 '이런 디테일 하나가 중요하죠. 참 지독한 연출이죠?'라며 미안한 내색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서 무대에 대한 진심과 성의가 느껴져 오히려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의상을 1~2번씩 갈아입어야 해서 사실 공연 중의 무대 뒤는 꽤나 다급했습니다. 강사 선생님들이 전속력으로 아이들 옷을 벗기고 입혀주려, 허리 리본을 매주고 장갑을 끼워주려 정신없이 움직이셨죠. 무대 뒤의 그 긴박함 속에서 아이들을 챙기는 선생님들을 보며, 앞에서 멋있는 모습을 담기 위해 두 개의 카메라로 고군분투하시는 촬영감독님, 또 무용감독님, 강사 선생님, 무대 크루들, 아트센터 무대감독님, 연출, 음악감독, 우리 모두가 무대 뒤에서 '함께 공연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뭉클해지네요.

Q6 이번 공연 작품이 아이들과 관객들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다고 생각하나요? 또는 어떤 의미가 되었으면 하나요?

A 단원들에게 이번 공연은 그동안 노력해온 실력을 마음껏 보여주며, 긴장되지만 친구들과 한바탕 신나게 놀아보는 '즐거운 게임'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특히 이번 공연 레퍼토리 중에 실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활용한 안무가 있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나름의 시선에서는, 진지함 속에서도 아이들의 표정은 마치 무대 위에서 이것만을 기다린 듯 친구들과 세상 가장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편, 저는 이 공연이 준비되는 동안 옆에서 지켜보며 사실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무대 위 앨리스와 앨리슨이 되어 춤추는 아이들을 보며, 관객분들도 잠시나마 '이상한 강릉'의 세계로 함께 모험을 떠나는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매년 꿈의 무용단 강릉의 공연을 볼 때마다, 청소년들의 공연은 어른들의 공연과는 다른 힘이 있는 걸 느낍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평가를 떠나, 관객분들도 순수한 에너지를 보며 잠시나마 현실의 짐을 내려놓고 <이상한 강릉의 앨리스>라는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보셨기를 바랍니다. 영화를 보듯 자신을 투영해 보고, 잠시 잊고 있던 동심을 마주하며 각자만의 의미를 찾아가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공연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변화 ✦

Q7 행정 담당자로서 바라봤을 때, ''꿈의 무용단'이라는 사업이 우리 강릉 지역 사회나 시민들에게 어떤 즐거움(또는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 가장 큰 지역 내 영향으로는 '꿈의 무용단'의 공연이 단순한 발표 공연을 넘어, 시민들에게 '믿고 보는 공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데요. 우연히 강릉맘카페에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어린이 무용단 공연이라는데 퀄리티가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댓글에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아이들이 준비한 공연인데, 퀄리티는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여인력들이 차근차근 쌓아온 노력이 헛되지 않았고, 시민들에게도 '작품성 있는 공연'으로 얘기할 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꿈의 무용단 사업은 아이들과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중심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강릉단오제 무대에 섰는데요. 강릉 학산 오독떼기를 오마주한 '황금들녘', 안반데기를 배경으로 한 '산과 함께' 같은 작품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이 사는 강릉을 춤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공연을 진행하는 동안 단원들이 멋진 의상과 안무, 세련된 음악 속에서 자신의 춤을 마음껏 뽐내며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무용단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반면, 시민들에게는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청소년들이 재해석한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새로운 무용 콘텐츠로 마주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연을 즐기게 했어요. 이처럼 무용을 매개로 아이들과 지역시민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매우 뜻깊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보람 ✦

Q8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가장 가슴 벅찼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A 의외로 저는 매주의 연습실의 풍경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단원들이 한 두명씩 오면서 연습실 앞 신발 켤레 수가 많아 지고, 수업 시작 전까지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붙잡고 웃는 시간들이 가장 평범하고 제일 설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쓰다보니 한 가지 생각나긴 하네요. 사실 무용감독님과 선생님들과 서로 의견을 나누다보면, 수업의 수준이라던가 여러 방면에서의 '적정함'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하루는 공연을 앞두고 도은 선생님께서 뻘뻘하게 필기 된 노트를 몇 장이고 넘기며 단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선생님도 너희들을 가르치기 위해 이렇게 매일 공부하고 준비 해오고 있어. 그러니 너희도 영상을 보다가 혹시라도 어려우면 이렇게 써서라도 익혔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데 마음이 쩡하더라구요.

그런데 얼마 후에, 단원 한 명이 저에게 조용히 와서 자신의 노트를 꺼내 보여주더라고요. 선생님의 말씀처럼 쪽마다 빈 틈없고 깨알같이 동작과 동선을 적어놓은 노트였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연습했는데! 도은 쌤께 저 열심히 노력했다고 전해주세요!'라며 보여주는데, 정말 감동했던 순간이었어요. 선생님들의 고민과 진심이 단원들에게 전해졌고, 그 진심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 그 순간이 가장 떠오르네요.

✦ 비전 ✦

Q9 내년, 그리고 앞으로의 꿈의 무용단 강릉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길 바라시나요?

A 대외적으로는 우리 꿈의 무용단이 강릉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교육의 '대체 불가한 N년산 나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곳 에는 단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교육의 가치를 믿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외부의 입김이나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당연한 듯 깊고 단단하게 뿌리 내려서, 진심으로 임하는 어른들의 꿈도 오롯이 지켜지는 든든한 무용단이 되길 바랍니다.

반면 대내적으로는,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여기서 더 바라는 건 완벽함을 바라는 욕심인 것 같습니다. 꿈의 무용단은 언제나 느슨하고 뽀뽀뽀한 동그라미이기를 바랍니다. 무용을 재밌어하며 배우러 오고, 틀려도 자신 감있게 틀리는 마음을 배우고,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가 하나되는 꿈의 무용단 강릉의 지금 모습이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활동 면에서는, 내년에는 좀 더 넓은 세계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해보고, 다양한 무대 위에 서서 그동안의 연습을 뽐낼 기회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무대를 즐기게 된 우리 단원들과 함께, 강릉의 멋진 문화와 자원들을 무용으로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날들을 기대합니다.

✦ 아이들에게 한마디 ✦

Q11 마지막으로, 9개월간 땀 흘리며 함께해 준 우리 꿈의 무용단 강릉의 단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어릴 적 초등학생 시절 선생님들의 단골멘트 '너희 덕분에 나도 늘 배운다.'는 말을 꿈의 무용단에서 실감할 줄이야. 너희가 9개월간 땀 흘리는 동안, 선생님들은 1년 내내 수업을 연구하고 고민하셨거든. 아마 쑥쑥 자라는 너희들만큼이나 우리 선생님들의 메타인지도 엄청 강해지셨을 거야!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될까?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꿈의 무용단 강릉과 함께 했던 기억이, 긍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것만으로도 꿈의 무용단은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연습시간에 데려다주신 부모님께 꼭 감사 인사하기! 또 무대 뒤에서는 너희들에게서 열정의 기운을 받은 정말 많은 어른들이 한마음으로 함께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너희가 어른이 되었을 때, 받은 사랑과 정성만큼 다음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함께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

꿈의 무용단 강릉 43회차와 특별활동까지 꽤 많은 시간동안 매주 즐거운 모습으로 토요일 아침 인사하며 만날 수 있어서 기뻐어! 다음에 또 보자!

특별활동

특별한 순간들

공연

강릉단오제
'무대공연 예술작품 선정작' 프로그램 공연

2025년 5월 31일
강릉단오장 수리마당



관람

지역 소재 뮤지컬
<강릉야화 흥장편> 단체관람

2025년 7월 23일
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



관람

제1회 꿈의 극단 강릉 정기공연
<나의 안테나에게> 공연 관람

2025년 11월 22일
강릉아트센터 대공연장



캠프

2025 꿈의 예술단 합동캠프 <꿈의 페스티벌> 사전 워크숍 참여
2025 꿈의 예술단 합동캠프 <꿈의 페스티벌> 참여
* 꿈의 페스티벌 : 문체부 주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2025년 8월 6일~8일
평창 일대



◆ 교육일정표 ◆

회차	교육 일시	시수	교육 주요 내용
1	3/15 10:00~13:00	3	첫 만남
2	3/22 10:00~13:00	3	신체활동
3	3/29 10:00~13:00	3	신체활동 및 감정
4	4/5 10:00~14:00	4	신체활동 및 감정
5	4/12 10:00~14:00	4	자기 표현과 협동
6	4/19 10:00~14:00	4	주제곡 안무 만들기
7	4/26 10:00~14:00	4	주제곡 안무 만들기
8	5/3 10:00~14:00	4	신체 인식
9	5/10 10:00~14:00	4	복합 감각 자극
10	5/17 10:00~14:00	4	복합 감각 자극
11	5/24 10:00~14:00	4	리듬
특별 교육	5/31 9:00~15:00	6	야외공연
12	6/14 10:00~13:00	3	즉흥(1)
13	6/21 10:00~13:00	3	즉흥(2)
14	6/28 10:00~13:00	3	즉흥(3)
15	7/5 10:00~14:00	4	제스처 움직임 개념 익히기
특별 교육	7/12 11:00~17:00	0	꿈의 캠프 사전 워크숍 *진흥원에서 인건비 지급
16	7/19 10:00~14:00	4	즉흥훈련 및 움직임 만들기
17	7/26 10:00~14:00	4	즉흥훈련 및 움직임 만들기
18	8/2 10:00~14:00	4	시청각 자료 관람
특별 교육	8/2 10:00~14:00	5	합동 캠프
특별 교육	8/6 10:00~종일	7	합동 캠프
특별 교육	8/7 종일	5	합동 캠프
19	8/16 10:00~14:00	4	'이상한 강릉의 엘리스' 테이블 작업 및 즉흥수업

회차	교육 일시	시수	교육 주요 내용
20	8/23 10:00~14:00	4	'이상한 강릉의 엘리스' 테이블 작업 및 즉흥수업
21	8/30 10:00~14:00	4	'이상한 강릉의 엘리스' 테이블 작업 및 즉흥수업
22	9/6 10:00~14:00	4	스토리과 움직임의 융합능력
23	9/13 10:00~14:00	4	테마 움직임 창작활동
24	9/20 10:00~14:00	4	테마 움직임 창작활동
25	9/27 10:00~14:00	4	동작조합 및 시퀀스 만들기
26	10/4 10:00~14:00	4	동작조합 및 시퀀스 만들기
27	10/10 19:00~21:00	2	장면 만들기
28	10/11 10:00~14:00	4	장면 만들기
29	10/17 19:00~21:00	2	마지막 장면 *결말 함께 만들기
30	10/18 10:00~14:00	4	마지막 장면 *결말 함께 만들기
31	10/24 19:00~21:00	2	반복 연습, 의상 체크
32	10/25 10:00~14:00	4	반복 연습
33	10/31 19:00~21:00	2	반복 연습
34	11/1 10:00~14:00	4	반복 연습, 소품 및 의상 사용하여 연습
35	11/6 18:00~21:00	3	반복 연습 및 소품 제작
36	11/7 18:00~21:00	3	반복 연습, 소품 및 의상 사용하여 연습
37	11/8 09:00~14:00	5	전체 런스루
38	11/13 18:00~21:00	3	전체 런스루
39	11/14 15:00~21:00	6	전체 런스루
40	11/15 10:00~22:00	6	리허설
41	11/16 9:00~22:00	6	정기공연
42	11/22 17:00~19:00	2	꿈의 극단 '강릉' 공연 관람
43	11/29 10:00~13:00	3	꿈의 무용단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 및 수료식

1차시 | 3/15 첫 만남



2차시 | 3/22 신체활동



3차시 | 3/29

신체활동 및 감정



5차시 | 4/12

자기 표현과 협동



4차시 | 4/5

신체활동 및 감정



6차시 | 4/19

주제곡 안무 만들기



7차시 | 4/26

주제곡 안무 만들기



9차시 | 5/10

복합 감각 자극



8차시 | 5/3

신체 인식



10차시 | 5/17

복합 감각 자극



11차시 | 5/24 리듬



13차시 | 6/21 즉흥 (2)



12차시 | 6/14 즉흥 (1)



14차시 | 6/28 즉흥 (3)



15차시 | 7/5

제스처 움직임 개념 익히기



18차시 | 8/2

시청각 자료 관람



16~17차시 | 7/19, 7/26

즉흥훈련 및 움직임 만들기



19차시 | 8/16

'이상한 강릉의 앨리스' 테이블 작업 및 즉흥수업



20차시 | 8/23

'이상한 강릉의 앨리스' 테이블 작업 및 즉흥수업



22차시 | 9/6

스토리과 움직임의 융합능력



21차시 | 8/30

'이상한 강릉의 앨리스' 테이블 작업 및 즉흥수업



23차시 | 9/13

테마 움직임 창작활동



24차시 | 9/20

테마 움직임 창작활동



26차시 | 10/4

동작조합 및 시퀀스 만들기



25차시 | 9/27

동작조합 및 시퀀스 만들기



27차시 | 10/10

장면 만들기



28차시 | 10/11 **장면 만들기**



30차시 | 10/18 **마지막 장면 *결말 함께 만들기**



29차시 | 10/17 **마지막 장면 *결말 함께 만들기**



31차시 | 10/24 **반복 연습, 이상 체크**



32차시 | 10/25

반복 연습



34차시 | 11/1

반복 연습, 소품 및 의상 사용하여 연습



33차시 | 10/31

반복 연습



35차시 | 11/6

반복 연습 및 소품제작



36차시 | 11/7

반복 연습, 소품 및 의상 사용하여 연습



38차시 | 11/13

전체 런스루



37차시 | 11/8

전체 런스루



39차시 | 11/14

전체 런스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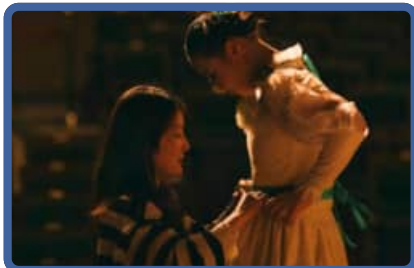
40차시 | 11/15 리허설



42차시 | 11/22 꿈의 극단 '강릉' 공연 관람



41차시 | 11/16 정기공연



43차시 | 11/29 꿈의 무용단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 및 수료식



앨리스의 일기
- 단원들의 이야기





공연 D-1



연서바보음 (희수언니 아모)



2025.11.15, 도망가다 짝꿍T



히릿, 나는 끈두 쟁 2025.11.15 김은



공무 공연 D-2!!



이도 있는 곳 쓸쓸한 가을



아보!! 득리로 변신!



과도한 화이팅! 잘 처음!



꿈꾸 공연 화이팅!

드디어! 옷이 보였어...

하하, 나는 큐티맨이야!

어피! 안녕하세요? 선생님! 공연!

이상한 장들의 알래스 환이팅!!



D-1 화이팅~!



집중!! 하는 우리들



힘내자 ❤️



공연 파이팅!



행복한 세븐



아우... 지은... 광범... 잊으길 땀... 또 도어...!



애매... 헤어샵, 꿈무래야임



이것이 사진에 잘 캐기



여두라 뽀짝이



하핫, 맛있겠다! 2025.11.15 ✓



꿈무 파이팅!



공연 2 선생님 말씀듣는중..



꿈무 콕팅! 하이파이브 !!



스카팅!



♡ 에너질



연서 바보님 소운 바부님



여지껏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거야♡
성장의 응원 앞앞쫄쫄

공무친구들
멋지다
-서명엽

언니들 힘
내주세요
선아가 사랑
-서명엽

아직이까
힘내요.
가장 응원합니다

우리 언니
화이팅!

A
♥
홍리희
♥
♥
♥
♥
A

아희!
사랑해 ♡

A
♦ 수.양선희
우리 둘도 최고!
화이팅!
♦
A

공리 응원
화이팅
견 나 언
영향리파파 고승경의
45세

모두
화이팅!

To. 박서준
25년 광우를
섬세하게 만났
1년여의 시간이
지났어.
종교는 신에게
너의 꿈을 찾아야할
것이야

은혜감동님♡
사랑합니다!! ♡

강릉공의무단♡
이상한 강릉의
앨리스-♡
화이팅!!
"기아형 화이팅"

너무 귀엽고
발산 귀수
보게 좋아다
화이팅

강릉공의무단♡
선생님들 최고!!
감사합니다!! ♡

강릉공의무단리
모뎀들(아이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은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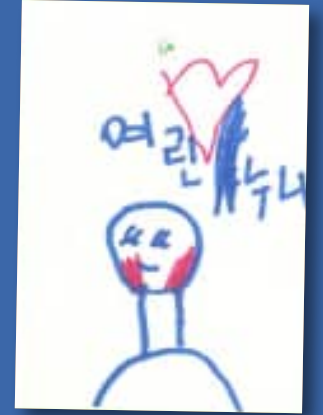
예민아
멋있다
ㅋㅋ



예민아
화이팅!
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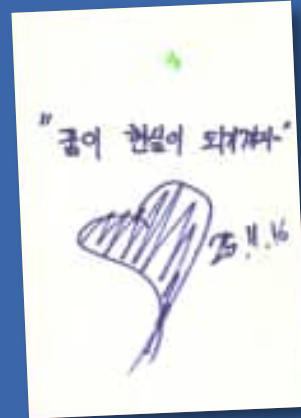
꿈무
해세랑



A
수고했다
취라임

할수있다!

꿈의 무용단
노력, 열정 가득한
무대 기대합니다.
최고의 화이팅!



멋진 친구들
화이팅!!
- 아이영아 -



강릉 꿈의 무용단 쌤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기대되는 오늘을
응원합니다!
심재연
화이팅!

꿈의 무용단
화이팅!
최고의 화이팅!

A
이영아
좋은 공연 볼수있게
응원해줘
힘들다
안녕하세요

멋진 공연에도
약수리
선생님
꿈무 안전 화이팅

A
꿈무
너희들의
응원해

Q

01
우리의 공연 날!
공연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강다운

사람들이 많아서 실수하면 안되겠다

권보민

걱정도 되고 설레이던 공연 날, 공연 무대에서 춤을 추며 나를 보는 관객분들이 '참, 멋있게 춤을 추고 있구나!', '보민이 춤 너무 잘 춘다'라고 생각하면서 공연을 봐 주셨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김서윤

관객들에게 내가 얼마나 연습했는지 보여주기위해 열심히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김예나

무대위 조명아래에 서니 긴장되고 설레었다.

김예린

나는 내가 프로라는 생각이 들었다.

강다현

내가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지원

실수하지 않게 집중하자 라고 생각했다

김예서

끝나고 나서 이제까지 선생님 한테 혼나고 연습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 힘든 노력이 지금까지 했던 공연을 만든 것 같다.

김민서

공연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나는 부끄럽지만 즐겁다는 생각이 들었다.

권지윤

나의 자신감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아현

틀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유주

너무 재미있고 난 역시 춤 취야 겠다

김지현

잘할 수 있을까? 긴장되고 떨렸다.

김하율

틀릴까봐 걱정

김시윤

아무생각도안들었다

박규리

떨리고 설레고 재미있다.

김민지

무대를 즐기면서 틀리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지윤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보고있는 사람이 한명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박다유

떨리기도 하고 신났다!

박소윤

엄마아빠가 날 보고있을까?

박서윤

이 순간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실수할까 긴장도 됐지만 동시에 여기까지 온 시간이 떠올라서 무대를 몸으로 기억하고 싶었어요.

이지윤

너무 익숙해서 리허설처럼 느껴졌어요ㅋㅋ

최라임

그동안 노력한 결과들을 펼칠 수 있어서 좋았다.

이수련

후회없이만 하자 라는 생각이들었다

이재린

무대에서 춤추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

이아루

너무 떨린다 잘하고싶다

박희수

그동안 연습한 모든걸 이제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생각하면서 틀리지 않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채연

엄마,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은 단원들 중에 나를 찾을 수 있을까? 나를 알아보는 친구들은 있을까?후회없이 잘 하자!

전하윤

내가 이래서 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구나...!!

추연아

많이 긴장되고 힘들었지만 재밌었다.

홍라희

"내가 서 있는 대형이 맞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장윤정

긴장도 되고 설레었다. 동작하나하나 실수하지 말고 잘 해내야 겠다고 생각했다.

유예안

뿌듯했다.

지은새

생각보다 재미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연서

꾸준히 연습하다가 드디어 본무대에 오르고 관객들을 행복하게 해줄 생각에 뿌듯했어요.

박한준

떨리지만 재미있었다.



지금 돌아보면 꿈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02

강다운

2박 3일로 평창?가서 공연한 것

권보민

꿈무를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당연히 정기공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을 시작하기 전, 무대에 서는 단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오늘 공연 잘 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연 직전 종이 세 번 찢었는데, 공연시작 종이 찢 때 설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박다유

커피 씬에서 각자의 안무를 만들 때 시를 쓴 것

김하율

단체로 서울 간일

남유주

정기공연 준비했던 것도 그렇고 정기공연도 가장 기억에 남는다

강다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마지막에 꿈무 다 같이 밥 먹은 게 생각이 난다.

권지윤

캠ป์ 갔을때 일본인들과 싸인한게 기억이 남았다

김민서

저는 파도씬이 제일 힘들지만 제일 돋보였던것 같아 기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김시윤

모든일전부터

김지윤

파도씬때 부채 그리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다.(나의 소품을 내가 만드는 것이니깐)

김지현

공연한날. 머리 화장도 하고 의상을 입어 기분이 좋았다.

김예서

꿈무에서 물고기씬 연습 때 은혜 선생님께서 예서의 박자가 맞다고 하셨을 때 기분이 좋아서 기억에 남는다.

김지원

캠ป์에 가서 다른 지역 친구들과 공연에 올라간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김예린

단원들과 함께 정기공연 씬을 짰던일

김민지

제가 짰 안무가 작품에 사용될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같습니다

김아현

꿈의무용단 첫날에 친구들과 인사를 나눴던 일

김예나

친구들과 언니들과 연습하고 동선을 맞추는 게 기억에 남았다.

김서윤

엄.. 파티..? ㅎㅎㅎ

박서윤

연습실에서 다 같이 지쳐 있으면서도 합을 맞췄던 날들인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던 순간들이 선명해요

박한준

단원들과 함께 정기공연했었던일??...

박희수

공연을 위해서 연습을하고 종파티에서 연습영상을 보여 추억? 을 보는게 기억에 남는다

이지윤

같이 웃고 떠들고 칭찬하는

추연아

첫 런스루 때?인거 같다

박규리

공연 전날

이아름

공연 당일! 런스루

지은새

캠ป์.

박소윤

캠ป์간날 친구들이랑 같이 잔일

유예안

마지막날.

장윤정

마지막날 파티하며 공연했던 영상을 보았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수련

모든날들이 다 기억에 남는다

심채연

정기공연 영상을 보면서 과자파티를 즐길때 그동안 노력한 순간들이 떠올라서 뿌듯함을 느꼈고 그래서 더 맛있고 즐겁게 먹었던 것 같아서 제일 기억에 남는다.

이재린

단원들과의 첫 만남

최라임

캠ป์에서 여러나라 친구들과 친해진것

성연서

처음 공연 연습했을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전하윤

사소하게 놀고 춤추던것

홍라희

바로 내가 이상한 강릉의 앨리스 정기공연에서 토끼 역할을 맡게 된 걸 알게된 날이다.



03

**오늘은 정기공연 실황공연 관람!
나의 공연을 관객이 되어
다시 바라보니,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권보민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저는 공연 내내 긴장되고, 설레이는 무대 속에서 지금까지 연습한 것들을 실수없이 잘 표현 하길 바랍니다. 나의 무대를 관객이 되어 바라본다면 파도썸에서 부채와 다리를 들고 공연하는 장면에서 다리 모양도 더 높이 부채도 더 멋있게 표현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하율

“우리 단원들이 아주 열심히 노력 했구나”라는 감정을 느낌

김지현

잘하네!

김예린

조금더 잘할수있을것 같았는데 아쉬웠다.

김지윤

얼굴이 생각보다 더 잘보여서 더 웃을걸..하는 생각이 들었다.

박다유

내가 조금 더 힘을 주고 춤을 출거라는 생각

박규리

연습을 열심히해서 공연을 하니 뿌듯하다

김민지

저때 더 깔끔하게 출 걸 더 힘 있게 출 걸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예나

조금 아쉽고 조금 더. 잘할걸후회되었다.

김예서

틀린 부분이 있었지만 다시 잘 맞춰간 건 같고,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그 순간을 즐기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다윤

생각보다 잘한다

김시윤

떨렸다

김아현

신기하고 뿌듯한 생각이 들었다.

권지윤

더욱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서윤

생각보다 표정이 너무 잘보였다

김지원

어떻게 보였는지 궁금하고 영상을 보는 건데도 긴장되고 설렘

김민서

저는 제가 조금더 잘할수 있을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서윤

무대 위의 제가 생각보다 단단해 보여서 놀랐어요. 부족한 부분도 보였지만 그 때 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괜히 마음이 좀 몽클했어요

최라임

틀린부분이 있어서 다시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고 ,정말 행복해보였다.

심채연

조금은 더 잘하고 싶었는데ㅠㅠ 오빠, 언니들 사이에서 나는 제일 작은 아기 같았고 처음 붙여본 속눈썹 때문에 눈이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고개를 자주 뒤로 젖히고 움직여서 내 목이 너무나 짧아보였다.ㅋㅋ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무대를 즐기고 있는 나를 볼 수 있었다 .

전하윤

떨리겠다는 생각

홍라희

내 생각보다 아쉽네~.

유예안

그래도 열심히 한것 같았다.

지은새

재미있었다

박한준

잘한것같아서 뿌듯했다.

성연서

내가 직접 관객이 되어보니 관객의 생각으로 상상하니 우리 단원들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지가 상상이 가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행복했어요

박희수

표정이 중요하구나 대형이 안 맞을때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즐겁게 즐기고 모든걸 뽐내고 무대를 한다는 거 자체에 만족스러운 생각이들었어요

이지윤

틀리게 없어서 좋았고,단원들과 같이 공연하는걸 보니 뭔가 뿌듯했다 ㅎㅎ

이아루

관객석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겠구나라고 생각했다

박소운

뿌듯했다.

이재린

우리 모두가 대단해 보였다

강다현

나의 공연의 관객이 되어보니 더 열심히 할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추연아

틀린 것이 많아 속상했지만 전체 작품을 보니 너무 아름다워 기분이 좋았다

이수련

생각보다 더 멋졌다

장운정

단원들 모두하나 되어 공연하는 모습을 보니 멋지고 자랑스러웠다

남유주

내가 이렇게 했었구나 아직까지도 여운이 남는다



04

다시 꿈의 무용단을 처음 시작했을 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____ 할 것 같다!

권보민

처음 무용단을 시작하는 날로 돌아간다면, 올해 연습 때 선생님들께서 보내 주신 동영상 강의를 더 꼼꼼히 확인하며 연습할 것 같습니다. 연습 때 제 실수가 다른 단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더 열심히 영상도 보고 미리 연습도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박다유

나는 엄청 열심히 하고 신날 것 같다.

김지현

열심히!!!!

김예린

더욱 더 즐기면서 할 것 같다.

강다운

더 열심히

김예서

더 열심히 임해야겠다.

권지윤

더욱 열심히해 하나한씩 외워가면서 열심히 할 것 같다!

김하율

더 열심히 노력

남유주

나는 너무 설레기도 하지만 처음 이라서 걱정도 된다

김아현

친구들과 더 친해졌을 것 같다.

김지윤

다시

김서윤

나는 열심히 할 것 같다!

강다현

내가 춤을 못 추더라도 후회 없게 추고 싶다.

박규리

더 열심히 할 것 같다!

김민서

다시 꿈의 무용단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잘할 할 것 같습니다!

김민지

무대 때 후회 없이 더 노력 할 것 같다!

김예나

자신있게 열심히 해볼것이다.

김시윤

더열심히 할것같다

박서윤

조금 덜 겁내고 더 많이 즐길 것 같아요. 잘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이 시간을 느끼는 데에 더 집중하고 싶어요

전하윤

더 열심히

박희수

연습영상을 꾸준히보며 더 노력하고 유연성을 기를거같아요

이지윤

대나무썩

추연아

뭔가 그냥 평소대로 애들이랑 놀것같다(?)

유예안

열심히.

박소윤

열심히

박한준

좀 더 열심히 할 것 같다!

지은새

열심히

최라임

지금 친한 언니동생들과 더 빨리 친해질것 같다.

장윤정

더 집중해서 할 것 같다!

이재린

더 많은 단원들과 친해지고 싶다

성연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김지원

마음가짐을 더 단단히 해서 모든 활동에 더 성실하게 참여할 것이다

이수련

더 열심히

심채연

더 노력하고 더 잘

이아름

더 활발하게 할 것 같다

홍라희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 선생님은 어떤 분 이실까? 라고 생각할 것 같다!

Q

무용감독 쌤,
주강사쌤들께 한 마디!

05

권보민

은혜쌤, 담당 쌤들 올해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무용하면서 즐거웠고, 좋은 추억이 되었어요. 다음 공연때도 멋진 공연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 드려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김하율

그동안 우리를 위해 고생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김예서

2024년부터 꿈의무용단을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잘 지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항상 저희보다도 힘드셨을텐데 계속 노력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안 보이는 곳에서 많은 노력해서 저희가 좋은 환경에서 재미있게 연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감사님들 사랑하여!♡

남유주

제 처음 정기공연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다운

감사합니다

김지현

감사합니다!♡

김예나

1년동안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서

저희를 너무 잘 가르쳐주시고 큰 공연을 할 수 있었던것은 거의 다 선생님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김서윤

그동안 저희 열심히 가르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다유

선생님! 2년 동안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지

그동안 좋은 안무,작품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공무를 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제 기억엔 항상 남아 있을 거 같아요! 저 포함 꿈무 친구들 가르치시느라 힘드시고 많은 노력 해주신 것도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김지윤

진짜 사랑해요♡

강다현

계속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예린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지윤

선생님!3년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김아현

그동안 저희를 가르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김시윤

좋은작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규리

은혜쌤, 도은쌤, 조안쌤, 설희쌤! 1년 동안 저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연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서영쌤! 감사합니다.

성연서

저희 공연을 멋지게 빛내주시고 안무도 일일이 다 짜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희수

1년동안 강사 라는 이름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도 화이팅하고 함께 즐겁게 해용♡

이지윤

무용감독님들 우리가 인원수도 많지만 가이드처럼 되어주시고 선생님들께 씬을 배운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우주만큼!! 그리고 보너스 서영선생님은 저희 맨날 간식이나 무대 챙겨주셔서 매일 감사드립니다!!

박서윤

항상 같은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고 믿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무대에 서는 법을 배운 것 뿐만 아니라 무대를 버티는 법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아루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지은새

사랑합니다.

이재린

진짜 너무 감사해요

유예안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전하윤

항상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장윤정

사랑합니다!♡멋진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한준

감독님 선생님들 정기공연 멋있게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엔 만나요~

김지윤

단원들이 정말 많은데도 한명한명 진심으로 봐주시고 멋지게 공연 올라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련

정기공연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에 힘써주시고 노력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공연도 할수있었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수있었습니다 항상 안보이는 곳에서도 저희를 위해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소윤

멋진공연할수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라임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신 선생님분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심채연

선생님들! 제가 잘 못해서 죄송해요ㅠㅠ 내년에도 꿈무의 단원이 될 수 있다면 더 잘 할게요!

추연아

어 저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작품을 만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모두가 빛나는 작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라희

2025년 꿈의 무용단에 3기 3학년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을 뵙게 된 건 좋은 일 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르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Q

06

10년 뒤에 내가
꿈의 무용단 강릉의
활동기록을 다시 찾아본다면
어떨까?

강다운

많이 뿌듯할 것 같다

권보민

10년 뒤에 커서 내가 꿈의 무용단 활동을 다시 본다면 너무 몽글하고 뿌듯할 것 같아요. 그때의 내가 한 활동들이 막 생각나면서 그리울 것 같기도하고, 그때의 선생님과 단원들과 생각날 것 같아요.

김하율

왠지 모르게 뿌듯할 것 같다

김예린

또 하고싶을 것 같다.

박다유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

강다현

10년 뒤에 내가 꿈의 활동기록을 찾아볼 땐 그 시절이 너무나도 그리울 것 같다.

김서윤

뿌듯할것같다용 !!

김지윤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것 같다.

박규리

뿌듯 할 것 같다

남유주

역시 나는 춤을 추는게 가장 행복하고 좋구나

김예서

10년 후에 꿈의 무용단 강릉의 활동기록을 다시 찾아본다면, 많이 뿌듯할 것 같고 단원들과 선생님들끼리 재미있는 추억을 쌓아서 그 추억이 새록새록 기억 날 것 같다. 단원들 선생님과 행복한 추억을 쌓은 건 꿈만 같았다. 수고했다는 말을 모두에게 전해드리고 싶다.

김민서

너무 뿌듯할것 같습니다!

권지윤

내가 이렇게 춤을 쳤구나 이부분이 틀렸네 라고 생각할것같아여

김아현

마음이 묘 할 것 같다.

김민지

그때 활동 기록을 보며 이뻐 어땀더라 생각하며 꿈우 친구들이 생각 날 것 같습니다

김예나

같이 했던 선생님과 언니들이 기억날것 같다.

김지원

꿈우 단원들과 선생님들이 너무 그리울거 같다

김시윤

신기할것같다

지은새

내가 저랬구나.

추연아

그냥 보다가 내가 이런 일을 했었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감동이 확 들것 같다

박서윤

지금의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때의 저는 이 시간을 참 그리워 할 것 같아요.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던 순간들로 기억날 것 같아요.

심채연

내가 이랬나? 제일 애기네? 꽤 귀엽네! 하면서 미소 짓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영상과 그때의 추억이 성인이 되는 내 인생에 활력소가 될 것 같다.

전하윤

신기할것 같다

김지현

웃길 것 같다

이아루

신기할것같다

박한준

자랑스러울것같다.

박소윤

뿌듯하고 재미있을것 같다

이지윤

뭔가 몽글하기도 할것같고 회상하며 과거를 되돌아보며 뭔가 선생님,단원들,감독님 등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이 또 들것 같아요

장윤정

어린나이에 도전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뿌듯할 것 같다

성연서

이때 어떻게 했는지 차근차근 보면서 평생 기억에 남기고 싶어요

유예안

좋을것 같다.

이재린

나 자신이 자랑스러울 것 같다

최라임

이렇게 활동기록들을 모아놔서 다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어 행복할것 같다.

이수련

어릴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재밌어보일것같다

박희수

되게 울컥하면서 추억이 느껴지면서 연락을 이어가고있는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낼거 같습니다

홍라희

“아, 내가 이때 이상한 강릉의 엘리스 공연에서 토끼역을 맡았었지! 정말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하며 그때의 추억을 꺼내 볼 것 같다.



우리는 하나다! 온전 한 하나다! 온 - 하!

본 인쇄물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강릉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2025 꿈의 무용단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25 꿈의 무용단 운영사업
꿈의 무용단 강릉 '온전한 하나'
세 번째 결과자료집**

발행일	2025. 12.
발행처	(재)강릉문화재단 25535 강릉시 경강로2019번길 9-1 강릉문화재단 033-647-6800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진흥원·강릉문화재단
협력	강릉시·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편집	강릉문화재단 예술교육팀

우리는 하나다,
온전한 하나다.


온하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천년 강릉문화재단
Gyeongju Culture & Arts Foundation

협력  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